東亞日報

今日八面

發行人 梁源模 印刷人 趙東植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朝鮮人生活의 歸結

一

今番慶北警察部에서 他의 救助를 要하지는아니하더래도 生活上에 아조 窮迫한者를 細民, 아모리하여도 他의 救助를 要하지안코는 到底히 連命할 可能이 업는者를 窮民, 乞食하면서 各處로 徘徊하는者를 乞人이라고 分類命名하야 調査한 結果에 依하면 如左

	戶數	慶北全戶數에 對한 百分比
細民	四一,二一八	一〇%一弱
窮民	九,八六九	二%四强
乞人	—	—
合計	五一,〇八七	一二%六强

	人口	慶北全人口에 對한 百分比
細民	一九〇,四四三	八%三强
窮民	三七,二五六	一%七强
乞人	一,一九三	〇%一强
合計	二二八,八九二	一〇%一弱

(備考)「大正十三年十二月末現在統計에依하면」慶北戶數 四〇四,八〇四 慶北人口 二,二六九,八〇二 朝鮮人戶數 四〇三,八〇 朝鮮人口 二,二六六,二六

二

細民에서 窮民으로 가기가 멀지 안코 窮民에서 乞人으로 떠러지기가 어렵지안은것은 直接調査의 任에 當하든 慶北警察部의 定義를보아도 알것이다 換言하면 移住民의 物質的生活의 水準의 水도 밋지못할만한 朝鮮人의 生活程度로도 依히 他의 救助는 要치아니하나 衣食住에 아조 窮迫한 百姓들이 細民이라한것을보면 細民의 明日은 窮民이요 또그다음날은 乞人이라하야도 過言이아닐듯하다 또한번뒤집어 말하면 慶北警察部는 漠然히 細民을 定義하야「生活上窮迫」은하나 他의 救助를 要하기에는 이르지 안은者」라한 故로 그貧困의 程度를 如實히 알기는 어려우나 일의「窮迫」이라는 말이 適用되도록 貧困한 者이면 細民의 生活이 即最低生活인것이 分明하다 何故오 同警察部의 定義가 明示하는바와 갓치 所謂細民이 이제 一步를 더 落下하면 아모리하여도 他의 救助가업시는 連命할 可望이 업는 窮民일것이요 細民과 窮民의 사이에 다시 다른 生活級이 업는 故다 換言하면「아직까지 自力으로 連命하는程度」의 生活이 即細民生活이요「一部分 他의 救助를 要하는 程度」의 生活이 即窮民生活이다 이로써 보면 細民과 窮民의 사이에는 自力 他力의 區別은 잇스나 俱히 連命할만한 程度의 生活을 하고잇다는 點으로는 兩者에 毫末의 差異가 업슬을 알것이다 이러서 生活程度만을 標準으로 하야 보면 同警察部의 所謂 細民과 窮民은 異名同種의 것임을 알 것이다 故로 細民이라고 決코 窮民보다 나은 者라고 볼수가 업다 이러서 그 所謂 細民은 窮民이란 階段을 지나지안코 乞人化할 사람의 數도 相當히 만흘것이다 何故오 元來 連命할 程度의 生活에 不過한 生活인 故로 一步를 誤하야 自力으로 扶持치 못하게 되는 날이면 細民은 죽거나 他의 救助를 밧거나 乞人化하거나의 셋가지 길밧게 업는데 죽기도 쉽지 못하고 他의 救助를 밧기도 容易치 안은 것이니 結局 乞人으로 化할수밧게 업는 셋닭이다 이러케 생각해보면 窮民이라는것과 乞人이라는것의 差異도 亦是 間髮之差에 不過할 줄을 알것이다 然則 此三者는 結局 難兄難弟의 生活級 即 同種異名의 生活級으로 보아도 大過가 업슬듯하다 그런데 三級의 合計數가 慶北一道만에 五萬一千八十七戶 二十二萬八千八百九十二人이라하니 吾人은 그 慘憺한 數字에 驚駭할밧게 업다

三

細窮乞을 合한 戶數의 慶北全戶數에 對한 百分比는 一二%六强이요 三者를 合한 人口의 慶北全人口에 對한 百分比는 一〇%一弱이다 여긔서 우리는 한가지 생각할것이 잇다 即人口의 衛度로보나 移住民의 居住狀態로 보나 他道의 中밧게 못되는 慶北이 이러하면 他諸道의 細窮乞의 數도 이만 못하다고 할수는 업슬것이다 然則朝鮮人口를 二千百萬으로만잡어도 그 一割即二百十萬의 大群이 即細가아니면 窮이요 窮이아니면 乞일것이다 아지못게라 이 數字가온데 日本人이 幾人이며 中國人이 幾人이며 來住西洋人이 幾人인가

四

여긔서 吾人은 본시 當局에게 一考를 促할수밧게 업다 民事에는 不動產債權의 差押件數의 激增케 刑事에는 쌀조각을 훔치는者 留置場을 自願하는者 罪업다고 放免하니 다시 罪를 짓고 留置를 哀乞하는 者의 出現等諸件이 前記統計數字와 因果關係가 업슬까 萬若 잇다하면 그리된 原因如何를 與論하고 此에 對한 對策을 講究實施하는 것이 爲政者의 任務가 아닐까 「民之爲道也無恒產無恒心苟無恒心放辟邪侈無不爲已」의 理는 孟子를 기다리지안코도 되어도 爲政者의 地位에 잇는 者면 알만한 理致가아닌가 「及陷乎罪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이며 孟子當時에는 罔民之政을 하면 만仁人이 못되는 程度에 그치엇지 모르나 二千年의 歲月이 지난 今日에 잇서서 罔民之政을 하다가는 其餘禍는 그보다더 甚함이 잇다는것은 殷鑑이 昭然하지 안는가 爲政者들만 가지고 云謂할바도 아니다 우리가 이때로만 當局의 爲政에 對하야 袖手傍觀的態度를 取하고 잇다가는 畢竟은 朝鮮人을 못살아보면 이것이 乞人이요 乞人을 못살아보면 이것이 朝鮮人일 地境까지 이를것은 明若燎火한 事勢니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生活保障을 絕叫할수밧게 업다

排英益盛과 英國態度硬化

英態度硬化 艦隊派遣이 證明

英國은 中國에 對하야 依然히 極히 平和的政策을 取할 方針이라고 政府當局은 成言하고 잇스나 消息通은 如斯한 成言이 잇슴에도 不拘하고 英政府는 漢口의 重大排英騷擾事件에 對하야 今番抗議할時에는 强硬한 態度를 取코저 準備中이라고 信한다 英政府가 去十七日 各種手段을 盡하야 中國에 잇는 英國의 財產과 在中英人의 生命과를 保護하겟다고 發明한 即後에 本日海軍省이 巡洋艦과 駐外海兵團에 出動을 命한 事는 明白히 英國의 强硬한 態度를 證明한다 北京政府와 國民政府가 假想을 버리고 互相提携함으로서 外人을 驅逐할것이라는 提案을 考慮中이라는 新民報에 當局은 深甚한 注意를 하고 잇다 其方面의 消息에 依하면 英政府가 其狼狽한것이 原因이 되여 態度硬化하야 海兵派遣으로 決定한것이라고 觀測하더라(倫敦十八日發)

탕크、飛行機도 中國派遣決定?

英國政府는 中國에 잇는 英國居留民의 生命財產保護를 爲하야 第一巡洋艦隊外「탕크」若干과 飛行機數臺도 派遣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傳聞되더라(倫敦十九日發)

巡洋艦增派는 英國民保護로 交涉은寬大한態度로한다고

英國海軍省은 第一巡洋艦隊를 中國에 增派하는 等 非常手段을 取하고 잇슴에도 不拘하고 中國에 對한 方針은 何等變化가 업다고 確言한 側에서 傳한다 官邊의 辨解에는 巡洋艦增派等은 英國民保護로 英吉利는 依然히 寬大한 態度로 交涉을 行하고 中國의 國民的希望을 實現케 하기에 努力하라고 其方法을 求할 意思이라고 하더라(倫敦十八日發)

英國海軍省은 第一巡洋艦隊를 中國에 急派될 巡洋艦隊에 參加할 目的이더라(프리머스十九日發)

他汽船도徵發

英國海軍省은 中國에 急派할 巡洋艦隊附屬으로「유니온·캇실」社船舶二隻을 傭船할 契約을 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必要한 境遇에는 命令一下即時出發하도록 他汽船도 徵發할 準備를 하엿다더라(倫敦十九日發)

戰鬪艦 二隻도增派

十九日當地發中國에 急航할 英國第一巡洋艦隊의 旗艦「휘비사」號는 其武裝以外 新히 機關砲若干을 裝置하엿다 同艦隊는 時間二十浬의 速力으로 中國에서 十九日間에 到着될터이라하며 明日下傳하는 바에 依하면 戰鬪艦「바함」·「마라야」及「마리안트」의 二隻(다 二萬七千五百噸)도 中國에 增遣될 것이오 軍當船의「사이아」號도 中國派遣의 命令을 바드리라더라(맘타十九日發)

英水兵二千百 英스머스로出發

三百의 水兵은 本日當地發「英스머스」로 向하엿는데 右는 中國에

長沙排英益盛 數萬郡衆이示威運動 亞細亞石油會社數日間에燒盡

長沙의 排英熱이 益盛하야 十六日夕刻示威民衆團에는 數萬의 群衆이 參加하엿는데 亞細亞石油會社는 數日에 亘하야 燒盡되여 多額의 損害를 受하엿더라(漢口十八日發)

長江一帶의 中兵射擊 各國汽船無非損害

長江上流航路는 只今도 中國兵의 射擊이 끗치지아니하야 各國汽船이 共損害를 受치아니한 者 업는바 十六日福靖丸은 死者一名重傷者一名을 出하엿더라(漢口十八日發)

租界問題에 武力을不用 英國側言明

漢口事件에 對하야 英國側에서는 租界를 即時回收키 爲하야 武力을 斷然코 使用치아니하며 英國의 方針은 交涉에 依한 事態의 推移를 待하야 徐徐히 解決하려한다 此時에 焦慮하는데는 南方政府이고 英國政府는 何等急히할 理由가 업는바 合理的으로 萬全을 期하고 잇다고 言明하엿더라(北京十七日發)

中要求에는 크게讓步 英國商相演說

英吉利商務大臣「커·필립·리프트리프라」氏는 其演說에 政府를 代表하야 對中政策을 發表하되 英政府는 當面의 形勢를 解決하기 爲하야 中國과 交涉할 意思는 勿論잇다 中國側의 提議에 應하기 爲하야 多大한 讓步를 敢히하는 寬大한 方針을 取하고 잇다 그러나 此와 同時에 萬若必要가 잇스면 英國은 中國在留民의 生命財產을 保護하기 爲하야는 모든 手段을 다하려고 決心하고 잇다 英國은 良心으로 其資源을 開發하야 平和와 繁榮을 希望하고 잇다고 述하엿더라(倫敦十九日發)

楊宇霆氏歸奉

오래入京中이던 楊宇霆氏는 本朝九時二十分歸奉하엿더라(奉天二十日發)

日對中四方針 外相議會에서態度聲明

幣原外相이 議會에서 闡明한 對中四大方針을 約述하면 如左하더라(東京電)

一、中國의 主權及領土保全을 尊重하고 其內政에 對하야는 絕對不干涉의 主義를 嚴守함

二、兩國間에 共存共榮의 關係並經濟上의 提携를 增進할 事를 期함

三、道理잇는 中國의 國民的希望에 對하야는 同情과 好意로써 此를 迎하며 其實現을 向하야 協力함을 不辭함

四、中國의 現狀에 對하야 可及的忍耐와 寬大한 態度를 取하는 同時에 日本의 正當且重要한 權利利益은 어듸까지던지 合理的手段을 다하야 其擁護에 努力할 覺悟이다

米國도海軍 派遣準備 危急하면即時出發

亞米加國務長官「켈록」氏 海軍長官「윌버」氏及提督者要求警備艦隊中司令으로 現今海軍省豫算局長이며 又軍事會議議員인「오악크메」少將은 決議한 結果 中國에서 必要한 때로 何時에던지 派遣할수 잇도록을 派遣하려고 準備하엿다 그러나 今後更히 公報를 接하야 事態가 危急하게되기外지는 出發을 中止하기로되엿다 國務長官「켈록」氏는 協議하기 爲하야 歸國을 命한 駐中公使「막크머레이」와 協議가 끗나면 歸任케한다고 主張하고 잇스나 一部에서는 同公使가 對中策을 그릇하엿다하야 他人을 公使로 任命하도록 要求中이더라(華盛頓十九日發)

北方附加稅增收 稅關外서徵收? 大總統令은空手形에不過

北京政府가 十二日의 大總統令으로 宣布한 一月一日부터 稅關에서 附加稅增徵을 한다는 件은 實行困難으로 觀測되는바 右는 稅關에서 徵收한다하면 總稅務使는 關稅收入充當分配의 規定에 依하야 優先擔保가 잇슴으로 順次配分의 措置를 取할수밧게 업슬터인데 如斯히하면 北京政府가 計劃하는 該收入을 擔保로하야 內外債를 起債하는 案도 畫餅에 歸하고 實際上의 所得을 어들수 업슴으로 結局廣東同樣稅關外에서 徵收하게 될것인바 其結果大總統令으로 指定한 增收와 如한것도 畢竟一片의 空手形에 止하야 地方當局의 分食에 不過하리라더라(北京十九日發)

不信任案提出

二十日野黨은 衆議院에 不信任案을 提出하엿는데 議場의 形勢를 보아 緊急上程할지도 未知라더라

形勢보아 緊急上程 提案說明은山本氏

本日午後衆議院에 提出된 政府不信任決議案은 如左하더라

衆議院은 內閣을 不信任함

提出者 山本悌二郎(政) 賛成者 政友會政友本黨全部인데 右決議案은 本日以後의 形勢에 依하야 隨時緊急動議로써 日程을 變更하야 議場에 上程될터인데 提案說明은 山本悌二郎氏가 此에 當하며 本黨川原茂輔氏는 賛成演說을 할터이다

不信任案提出者 政本兩黨全部

不信任案提出者는 山本悌二郎、床次竹二郎總裁及政、本兩黨總務幹事全員이며 賛成者는 政本兩黨員全部이라더라(東京電)

即時解散 不信任案可決이면

政府는 不信任案의 可決을 보면 即時解散하기로 決定한 貌樣이더라

議會畢竟停會 三日間停會決定

二十日午後一時二十五分議會의 詔書가 降下되엿더라(東京電)

政府는 議會를 三日間停會하기로 決定하엿더라(東京電)

野黨作戰 第一步 緊急決意案內容

政友會本黨의 賛成을 得하야 提出되야 十九日의 衆議院本會議에서 可決된 鳩山一郎氏의 緊急決議案의 內容은 左와如하더라(東京電)

◇決議案

政府는 朴烈事件、金子文子에 對한 減刑奏請의 書類並同人等에 對한 檢事總長의 減刑奏請中에 添附하엿든 書類를 提出할事

右決議함

政府不應이면 議會紛亂未免?

鳩山氏提出決議案通過에 對하야 政府는 對策을 協議한 結果 議院法第七十四條에 依하야 어듸까지 秘密히한다는 理由로써 此要求에 不應하기로 決定하엿다 其結果議會는 一大混亂을 未免하리라더라(東京電)

濱口氏 熱海서靜養後 內相으로議會臨場

濱口內相은 政爭의 渦中으로부터 離하야 病後를 靜養하고자 中島秘書官을 隨行케하야 十九日午後三時二十分熱海에 到着하야 即時自動車로 熱海「玉屋」에 드러가서 醫師의 診斷을 受하엿는데 中島秘書官은 內相에 代하야 二十八日外지 滯在할 豫定으로 歸京하면 勿論即時內相으로써 議會에 臨하야 政戰의 正面에 나타날것이라고 語하더라(熱海電)

委員會議席 前途風雲暗示

政本兩黨은 可及的速히 豫算總會를 開하고 所謂一問一答으로 政府의 急所를 衝할 方針으로 十八日川原委員長並各理事는 豫算委員室에 參集協議한 結果 各派의 議席을 向하야 右로부터 本黨、政友會、新正俱樂部、憲政會의 順序로 與黨과 野黨의 分野를 鮮明케하엿는데 此는 委員會前途의 風雲을 暗示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된다 그리고 十九日부터 開會하야 政府에 交涉하엿스나 大臣의 出席이 不可能이라는 同答이 잇섯더라(東京電)

憲政陣容變改 反對黨態度로

憲政會에서는 御大葬前은 可及的穩和自重謹愼의 態度를 取하기로 되여잇섯는데 十九日의 本會議에 鳩山一郎氏의 質問中(上御一人을 欺하고云云)其他의 言辭及政友會의 態度全然卑劣하야 不謹愼이며 且挑戰的이라하야 그대로 放置할時는 政府及與黨의 面目을 失墜하는 同時에 國民의 誤解를 招致할 念慮가 잇다고 今後反對黨의 挑戰에 應할 覺悟를 가지며 境遇에 依하야는 政府를 鞭撻하야 積極的手段에 出함이 必要가 잇다하야 山道橫山勝一兩總務는 政府의 諒解下에 十九日議會散會後의 代議士會에서 其趣旨를 聞明하엿더라(東京電)

樺太移民獎勵

勞農政府는 樺太移民을 獎勵하고 政府指定地移民者에게는 稅金과 兵役을 免除하기로 決定하엿더라(莫斯科十七日發)

橫說竪說

◇朴烈問題로 開幕된、東京日比谷座는、野黨의 不信任案提出로、畢竟停會되엿다고

◇張本人朴烈은、投獄되여도、소리업는 爆彈만은、依然日比谷座를、騷亂식히는 貌樣

◇市內某某署長은、富豪兩班에 對한 面會紹介書쓰기에 沒頭하다고、富豪집門番서기兼務인지?

革命軍目標 英國다음日本 顧問보로딘氏聲明

國民革命軍內部에는 國民黨系와 共產黨系間抗爭機軋이 업지는안으나 只今은 共產黨系의 勢力이 國民黨의 實權을 掌握하게 된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共產黨이 今日勢威를 잡게 된것은 黨員의 結束이 鞏固한것과 訓練에도 잇겟지만은 全然露人顧問「보로딘」氏의 智術에 依한것이만라 莊鵬二十四日武昌에서 開催된 國民黨省市黨部中央黨部執行監察委員聯席會議席上「보로딘」顧問이 試한 演說을 들은 者는 即彼는『各帝國主義者의 中國에 對한 態度와 政策及中國이 今後取하려는 對應策略에 對하야』라는 題下에 大要左와 如한 指導的演說을 하엿다

數月來、中國革命勢力이 迅速한 發展을 遂하게되자 帝國主義者특히 英帝國主義者는 英國知所指하야 中國에 對한 態度를 全然變하게 되엿다 그러나 彼等이 今日에 곳 中國의 要求는 長지 안할것이다 特히 注意할 點은 英日兩帝國主義者의 態度로 彼等은 厚顏하게도 一面國民政府에 向하야 好意를 表하는듯하면서 一方暗暗裏에 여러가지 手段으로 日下中國에 잇서서 比較的力量이 잇는 奉天系軍閥을 幇助하야 革命軍及革命民衆에 對하야 敵對行爲를 取하고 잇다 如斯한 行動은 帝國主義者와 殘餘軍閥과의 最後的妄動으로 이미 露西亞革命道程에서 實驗한바이니 中國革命勢力으로도 一次는 到底히 避치못할 道程일것이다

張作霖은 日本帝國主義의 所產이라고 指稱할수밧게 업다 그러나 日本은 過去數年間中國民衆의 聯合戰線에 投降하엿다 小島帝國의 活路는 오즉 大陸과의 經濟交通에 有할것뿐임을 先覺한다면 우리民衆은 今後더욱 狡黠한 小島帝國主義者의 態度에 對하야 注意警戒치안하면 안될것이다 吾等의 聯合戰線은 英佛米等諸帝國主義者에 對한것이다 그러나 그目標는 故孫文氏가 指示한바와 如히 무엇보담 몬저 英帝國主義를 破壞하는것이 急務로 其他는 大勢에 따라 投降하게 될것임으로 日下吾等이 着目할것은 英日兩國의 中國에 對한 經濟的地位이다 我等은 이미 英日野心이 結合한 聯盟關係打破에 珍的成功을 收하엿다 要컨대 彼等의 經濟的地位는 戰爭關係에 잇슴으로 英國의 國民黨에 對한 好意的表現과 日本의 英勢力打破方針에 對하야는 巧妙한 運用에 依하야 操縱할 用意가 必要하다 即英、日에 限할뿐아니라 佛、米其他에 對하여도 同樣의 注意를 하여야할것이다 即我等은 彼等個個의 利害에 順應하야 巧妙히 對外策略을 取치안하면 안될것이다 如斯히하여야 모든 不平等條約은 撤廢되고 軍閥援助小策도 絕滅될것이다 願컨대 農工商學各階級은 大同團結하야 帝國主義及殘餘軍閥과 共同戰線을 取함에 日標로 最後의 決勢에 對하야 革命遂行上의 祖國에서 經驗한것이 반듯이 中國革命民衆을 開導함에 多少의 參照가 될것을 確信한다云云

廣東의大大的 反英宣傳運動 各團의漢口事件宣傳隊橫行

廣東에서는 十六日부터 二十一日外지 漢口事件應援示威大會를 繼續開催하기로 하엿는데 市中에는 學生勞働者婦女各團體의 漢口事件宣傳隊多數가 橫行하면서 反英宣傳을 猛烈히하는 一方特히 廣東省總政治部는 十五日부터 廿一日外지 反英運動週間으로하야 各團體에 對하야 反英宣傳運動을 擧行하려고 命令하엿더라(廣東十九日發)

漢口各銀行 不得已休業

銀行職員工會는 各銀行에 增給을 要求하야 十八日부터 罷業한다고 威嚇하고 正金에서는 七日에 이미 數十名糾察隊가 襲擊하야 執務를 妨害하고 不得已休業하게 되엿다 其他도 十八日부터 休業할터이더라(漢口十七日發)

侮辱當하고 默視不能 엑스프렛스評

獨立新聞「데일리·엑스프렛스」는 社說에 左와 如히 論評하엿더라(倫敦十九日發)

中國國民政府外交部長陳友仁氏는 英國이 暴力에 屈치아니할 事를 諒解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大概暴力行動을 中止케하는 事는 今番中國에 擾頭한 運動을 相對로 英國이 交涉을 開始함이 緊要한 前提이다 右運動은 其根源이 國民主義임을 信한다 英國에서는 千구든지 中國에 對하야 侵略的行動을 取하는 事를 是認하는 者가 업다 又英國의 政策은 中國에 잇는 英市民의 生命財產을 保護함에 잇고 侵略手段을 取하는 事는 업다 英政府는 襲擊을 當하고 侮辱을 當하고 默殺을 當하면서 어느때外지든지 默默히 잇슬수는 업다

英閣議決定 居留民保護에 手段을不擇

英國內閣은 最近의 閣議에서 上海에 잇는 英國居留民其他生命財產을 保護하기 爲하야는 如何한 手段을 取하던지 此를 保護하라고 決定하엿더라(巴里十九日發)

奉天二重課稅紛糾

奉天城內行役物에 對한 中國側의 二重課稅問題는 其後더욱 紛糾하야 中日本側商人의 態度가 强硬하야 中國側에서 어듸外지 課稅方針을 撤回치아니할때는 城內中國商人과의 取引을 絕交하는것도 不辭할 모양이다 이에 吉田總領事는 中國交涉署에 對하야 二十日午後第一回交涉을 하리라더라(奉天二十日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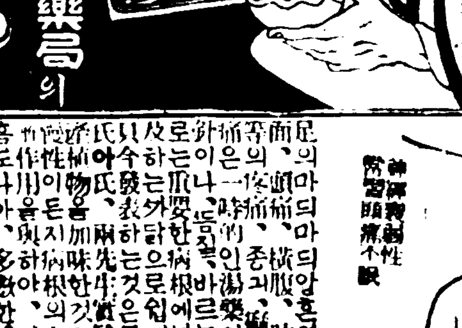
附加稅 徵收延期 各省便法不一로

總稅務司「아그렌」氏는 上海로부터 各稅務司에 對하야 附加稅徵收命令은 냇스나 北方政府擁護의 各省間에서도 아직 其便法이 一致되지아니하엿슴으로 實施는 아직 考慮의 餘地가 잇고 外交團側의 態度를 본뒤에 다시 무슨 命令을 發할터로 打電하엿다 其理由로써 傳하는 바에 依하면

一、徵收實行開始外지 期間이 업는 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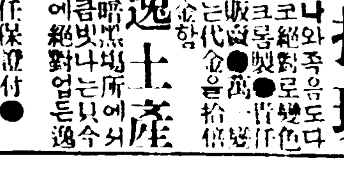
二、現狀으로는 收入을 正當하게 處理할 自信이 업는 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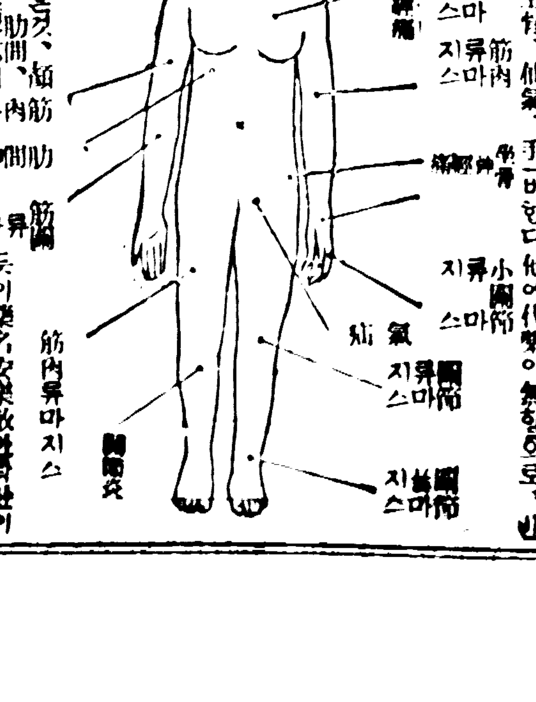
三、總稅務司는 中國政府一官吏이나 專門的事項에 對하야는 各國의 諒解를 必要로하는 事等이더라(北京十九日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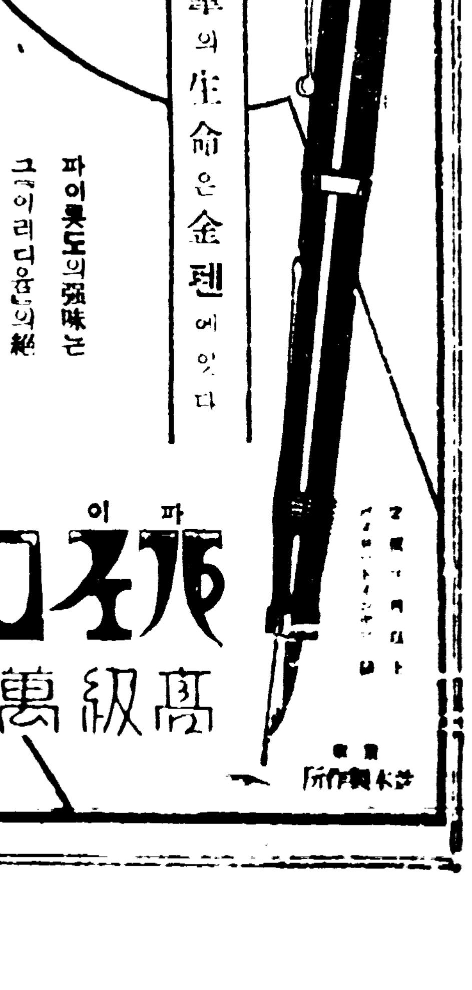
九條藥局의 クブント
感氣·熱·身熱
一包服用하면곳나슴
竹村製劑所
藥劑師 竹村幸次郎
振替大阪三二六〇番
全國到ル處ノ藥店ニアリ

마음에드시는 家具를사라면
忠州大手町
和洋家具 朝香堂에
主務 李善圭
工作係 韓衡國

東京서大流行하는 暗黑場所에서猛烈히빗나는寶玉入
白金代用指環

獨逸土產
東京王子振替東京六五〇三六番
田端町一八〇七 東神洋行


神奇하게낫는 神經痛 류마지스
仙氣 腰 足痛
▼針、뜸질、溫泉、바르는藥으로도낫지안는사람
▼엇던 慢性에 有効함
四十人이면十人이다 性에合하야 김버한다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四番地 河合洋行 京城支店
代理店 京城府黃金町 竹內洋行藥品部
釜山府西町四丁目五六番地 河合洋行南鮮支店
東京市本鄉區 安樂散 總發賣元 河合洋行

明治大學 學生募集
法學部豫科 商學部豫科 政治經濟學部豫科
法科專門部 商科專門部 政治經濟科同 經濟科專門部


萬年筆의 生命은 金펜에 잇다
파이롯도의 强味는 그 이리디윰의 絕對的良質에 잇다
파이롯도
高級萬年筆

보는대로 듯는대로 생각나는대로 □□□ 忙中閑人

향락의그늘

백만장자로 이름잇는 동대문밧(東大門外)모부호는 소관경찰당국(警察當局)의 소개장가진사람이 아니면 면회를 하지안는다한다。

◇ 경찰당국의소개로써「안심」하기까지에이른 그에의심중에 어느덩도까지의「불안」이 잇는지는 자세히추측하기 어려운거니와 불의의권총이나 과격한협박이이르지안을가하는 초조한생각에 가장이 몹일만하게되는「불안」이 잇슬넌지도 모를것이나 무상한 금전의향락가운데도 이가튼불안이 잇는가보다。

◇ 만주왕(滿洲王)으로 이름잇는봉천(奉天)의장작림(張作霖)은강렬갑자동차(鋼鐵甲自動車)에 긔관총(機關銃)을 배치하지안코는 외출을 하지안는다한다。

◇ 텰갑자동차에 긔관총까지 설비하고야「안심」하기까지에이른 그네의 신변에 엄마만한「위협」이 잇는지는 자세히 추측하기어려운거니와 이외의 폭탄과 무서운습격이 이르지 안을가하는 전전한생각에 사지가 욱어지가치되는「불안」이 잇슬넌지도 모를것이다。 기탄업는 권력의 향락가운데도 이가튼불안이잇는가보다。

◇ 찬바람곳치는 길거리에는 신녀성의 안타싸운다리가 보힌다。무릅까지보히는 가는단다리에는 얇다란 여름양말한벌만이며헛솜옷이니 살쌀한바람에 차긴들 얼마나차며 아리긴들 얼마나 아릴것이랴?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참고견된다。어엽부게보히고 맵시잇게차리는 쾌감과만족을 엇기위하야서는 살점을 어이는듯한 이괴로움을 참고견된다。

◇ 미주가효(美酒佳肴)의향락뒤에는 때가망신의 비애가따라다닌다。화류풍정(花柳風情)의향락뒤에는 악명독균의고통이 따라다닌다。이것이 하늘의뜻일가? 이것이 자연의약속일가?

◇ 향락의 그늘에 숨어다니는불안!이는 정비례(正比例)의관계를 가지고잇스니 향락의뎡도가 크고적음을따러서 불안의보수도 커지고 적어진다 공평한 하늘은 늘 이것을 감시하고잇다。

◇ 길거리 꽁꽁에서 무심히보히고 무심히들리는 온갓사실중에서 나는 이가튼 하늘의뜻을늘보고듯는다。그래서 그즐을안다。

法廷에서泰然抱擁 監房에서兩人同居

◇박렬부처괴사진괴문서내용◇

金子文子의死因도不明

◇법뎡에서 포옹한 박렬의부처◇

【揭載禁止中昨日解禁】 박렬(朴烈)과의 옥중에서자살한 그의 애처박문자(朴文子)에대하야 작년칠월이십구일이래 게재금지로되엿던 괴문서 또한동년구월륙일이래게재금지로되엿던괴문서(怪文書)사건은 재작십구일중의원(衆議員)에서이에대하야야당(野黨)으로부터질문도잇섯고 또한그것을의미히게재금지를하여두는것은 오히려 각방면으로폐해가만흘듯하다하야 약규(若槻)수상과안달(安達)내상내리가 회견하고의론한결과 해금하기로결뎡하엿는데 그괴문서의내용은 하나는박렬과 박문자가 서로붓안고 잇는사진에대하야 박렬부부를 너머우대하엿다는것이오 또하나는 경탄할만한다섯가지의신괴문(新怪文)이라고한문서로 첫재는예심뎡에서 박렬부부가 삼십분동안이나 립송(立松)판사를가운데안치고 가치잇는것이오 둘재는 그후새판이회뎡된다음에 박렬부부가 박렬의독방에두어시간동안이나 가치잇는것이며 셋재는그후문자는회임(懷姙)을하야 당국은선후책에부심하엿다는것이오 그후문자가 죽은시대에는 이상스러뎐이잇섯다고하야 여론을 이르키랴던것이라더라(동경뎐보)

昨曉開城大火 全半燒十五戶

◇원인은미상、손해칠팔만원

작이십일새벽세시이십분경에개성북본뎡(開城北本町)일백사십번디석유상(石油商)하형창(咸□八)의집에서불이나서 북본뎡에잇는보춘당약방(寶春堂藥房)개성사진관(開城寫眞館)고려상회(高麗商會)혁신양화뎜(革新洋靴店)인삼상뎜(人蔘商店)고재명상뎜(高在明商店)최익본치과의원(崔益本齒科醫院)등이연소되고다시대화뎡(大和町)김병식상뎜(金炳植商店)과개성사(開城社)등이다타버렷는데일곱시경에야겨우진화되엿다는데전소십이호 반소삼호에 손해가칠팔만원가량이라하며발화원인은방금조사중이라는바 그곳은개성에서 뎨일번화한 장소인만콤 일시는 일대혼잡을 일우엇다더라(개성지국뎐화)

抱川鑛山爆發

십팔일오전한시삼십분경에경긔도포천군영중면영중광산운해갱(京畿道抱川郡永中面永中鑛山雲海坑)안에서 채광감독산하금태랑(山下金太郎)이광부윤영식(尹永植)에게『다이나마이트』이백개를넘기엿든바그만폭발되야 윤영식은 중상을당하엿는데목하조사중이라더라

朝鮮獨立運動史編纂

◇미주에서영문으로출판◇

모처에도착한 최근의상해(上海)정보를듯건대 재미국한인회(在米國韓人會)에서는 조선독립운동이래 팔개년동안의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를영문(英文)으로편찬하는중이라는데불원간에완성할모양이라더라

新義州署員 仁川서도活動

재작십구일오전에 신의주(新義州)경찰서형사 리도익(李道翊)이가인천(仁川)에나타나인천서원의응원을 어더가지고 인천부외리(外里)모처에서삼십삼사세가량되는 청년한명을 검거하여방금극비밀리에 취조를 하는중이라는데 진상은아직 알수가업스나 국경외에잇는모단데와련락을취하여 적화선뎐을 계획하는중에그와가치 톄포된듯 하다하며그는작년년말부터 전긔외리에서거주하엿든사람이라는바작이십일밤 렬차로신의주를 향하여출발할모양이라더라(인천)

馬山警察도 船車를警戒中

각처에서는 권총대가 침입하엿다는둥 협박장이 들어온다는둥하야일반은불안중에잇다는최근에마산(馬山)경찰도퍽 긴장되여부근각정거장과부두에서긔차긔선의승객을엄중히경계하는모양이라더라(마산)

檢擧한三名을 新義州로護送

일변호송하고일변계속활동

신의주(新義州)경찰서원이 경성에출장하야와서종로서고등계의응원을어더 대활동을 개시하엿다함은 작보한바어니와 작이십일오전까지 시내모모처에서 김경산(金京山)(가명)이라는사람외두명을인치하고신의주서 모근(茅根)경부보가종로서고등계취조실에서 극비밀리에 엄중한취조를계속하는중이엇는데사건의내용에대하야는 의연히 입을담을고 말하지안으나 작보한바와가치해외에서모중대사명을띄고사람들이 경성에드러와 모비밀단테를 조직하고잇다는것을 수일전신의주서에그관계자두명이검거될때에 단서를 어더가지고그와가치 경성에서도 세명을검거한모양인데 그외에도 관계혐의자가 더잇다하나 모다종적을알지못하야위선검거된권긔세명은모다이십일밤으로모근경부보와가치나온신의주서의리(李)형사가동서로 압송하여가고 형편에따라모근경부보는수일간더경성에톄재하며사건수색에활동할모양갓더라

忘憂里殺人犯 全部變名行世

양주군 구리면망우리(楊州郡九里面忘憂里)고개에서 중국인두명을 살해한 범인으로 왕덕인(王德仁)(三二)외세명을진청한혐의자로 판명하고 수색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후 경찰부에서 조사를더세밀히하여본 결과 판명되엿다든 그일흠은 전부위명(僞名)으로판명되엿슴으로사건수색상 새고장이 생기엿다는데그범인들은 미리부터 살해할의사를품고피해자두명을따려가든중시외모처의려관에투숙하엿든일까지판명되엿다하나범인은 아즉알수업다하며범인의일행이 경성으로 드러왓다는 소문도 잇스나 각긔헤여지어 양주방면으로 도주한듯한 형적이잇다더라

拳銃青年二名 江東에突現、平壤으로潛入

군자금을거더가지고잠적

지난십오일오전한시반경에강동군강동면하리(江東郡江東面下里)의생 손경인(孫慶仁)(三三)의집에두명의권총청년이침입하야 주인손경인을이르켜안치고자긔들은중국상해(上海)로부터드려

攝氏로零下五十度酷寒

근래에드문어마어마한추위 最近의西伯利亞方面

목하로서아(露國)에는전국뎍으로맹렬한치위가 엄습하엿다는데그는 서백리아의 더긔압(低氣壓)이모다서쪽으로향하야 동하는싸닭이라하며 그더긔압의중심위치는방금『페치오라』하(河)방면이라한다 십팔일의 그곳치위는섭씨(攝氏)령하 사십오도(度)로내렷스며또서백리아각디방은령하삼십도로사십오도까지의사이고『야쿠크』에서는오십도라는무서운치위라는데더욱남쪽각디방까지엄습하야『로스토우』『아스트라』등디는령하이십오도로삼십도까지내렷다하며『모스크바』(莫斯科)는데일치운날이지난십오일밤이엇다는바령하삼십이도까지내렷다더라

鹿兒島灣의夜光虫 二十里海上을照明

暗夜、岸上에서讀書도可能

=일본록아도만부근에서야광충의괴화 배주가치빗치는깁흔밤바다우의장관=

도지난십칠일오후아홉시경에록아도시외심악사평송신사(鹿兒島市外心岳寺平松神社)부근바다가약오마일가량이나은빗가튼광채에싸히고압바다에는 약이십간에긍하는기다란불이 쏙쌔여잇서서 휘황이빗치어그장관은실로무엇이라고형언할수가업섯스며 더욱이 그불은엇지나밝은지 신문(新聞)을읽을만한뎡도이엇다는데 그날은넓한시경에꺼지엇고 그이튼날십팔일밤에도그불은전날과가치 또다시나타낫섯다는바그현상에대하야 데칠고등학교교수의연구한바에의지하면 야광충(夜光虫)의뭉치가조수에밀녀들어옴우에뜨는싸닭으로 그광채이엇든것이듯하다고하나 실로진긔한현상이엇섯다더라(록아도발뎐)

李承春平壤에?

평양경찰은아연대활동 昨年末부터搜索하든사람

의렬단(義烈團)에도관게잇고병인의용대(丙寅義勇隊)에도관게가잇다는리승춘(李承春)이가수일전에평양(平壤)에드러온흔적이잇다하야평남경찰부에서는극비밀리에수색을하는중이라는데 전력을다하야수색하는중이라더라(평양뎐화)

驛頭의怪青年

=국경방면서부터미행하던청년 경성역에나리자간데온데업서=

尾行刑事蒼慌罔措

근일에 각방면으로부터 모험단데가드러온다는정보가빈빈함으로 전조선렬차에 형사사오인식을 배치하여 수상한사람만보면검속을거듭하여오는중인데작일오전여섯시경성역(京城驛)에도착하는 경의선렬차속에서 신의주(新義州)서부터미행하든년령이십사오세가량되여보이는수상한청년한명이 하차한일이 잇섯는데 그는삼등렬차속에서 잇다가 경성역에도착할즈음에는 돌연히 이동차간으로드러가서 파실상자비슷한것한개를가지고는미행하든 형사의눈을 교묘히피하여 어데로인지 종적을감추어버렷슴으로 본뎡서에서는 각방면으로수색중이나아직하등의단서를엇지못하엿다더라

婦女殺人

돌맹이로따려

대전군북면미호리(大田郡北面美湖里)강태형(姜泰亨)의처오씨(吳氏)(五○)는 그이웃 송석태(宋錫泰)(二九)를돌맹이로 가슴(胸部)을따려그만죽게하엿다는데 피해자송석태외두명이 지난칠일에 전긔가해자의남편 강태형의소유인림(園林)에가서나무를할때에가해자오씨의딸(九)이나무를못하게함으로송석태가그어린애를따려머리에상처를내여보냇는데 그이튼날인 팔일에 오씨가 송석태의집으로가서 돌맹이를집어던지다가그후로삼사일신음하다가지난십일일오후세시반에죽어버렷다더라(대전)

◇휴지통▲적십자병원에서는 작이십일오전열시경에 ▲시내종로 리태영(李泰榮)이라는 인후병환자를 진찰하다가 ▲침을 바드려고▲손짓을좀하엿더니 바로또차 내여버렷다고 ▲누구던지 그병원에갈라면 손은빼여놋코 갈필요가잇군 ▲경성부에서는 도로시설을하는데에 수익세(受益稅)를 바드리라 는데 ▲수익세를 바더 보지도 아니하고주정계댱(酒井係長)이수익세를 안내면 길을안꼿치겟다고 미리야단이라나 ▲원래 도로시설에정성이업는터이니까

勞農의博物學者 슈밋드博士入京

一千兩의葉錢실고 騎馬登程京釜街道

二十六年前來韓談

=이십륙년전처음으로조선에오든진긔한이야기 인정풍속과조선고금의박물을시찰하려다시와=

셰게뎍으로 유명한 쏘베트、로서아박물학자(博物學者)로『레닌그라드』 박물진렬관댱이오『레닌그라드』농민대학 교수인『페트르、수밋드』(ㅍ)박사는작년십월동경(東京)에서개최된범태평양 학술대회에참가하엿다가 일본각지를 시찰하고특히류큐(琉球)를방문하야 약삼주일동안 각처를시찰연구한후『레닌그라드』로귀환하는 도중작일오전일곱시사십오분착특급으로 경성에도착하야 조선『호텔』에투숙 하엿는데

◇

박사를「쏘베트」총령사관으로방문하엿더니 박사는 관후한얼굴에웃음을가득히실고「반갑습니다 나는지금부터이십륙년전인가보이다 천구백일년에박물학연구의 목뎍을가지고조선에왓든일이잇는데 그때는아직조선에 긔차도업고 뎐신도업고자동차도업슬때입니다 조선의지질과 인정풍속을연구하노라고 해삼위(海參威)로부터원산(元山)까지는 배를타고왓스되원산에서부터는 륙로로말을타고 산길은도보로 금강산(金剛山)을탐험하고 동부조선을밟습하야 부산(釜山)에이르럿다가 다시부산에서 도보로경성(京城)에드러왓슴는데 그때사용하든돈은 엽전(葉錢)이라 지금으로치면불과이삼십원밧게아니될러비를 말한필에잔득실코 다녓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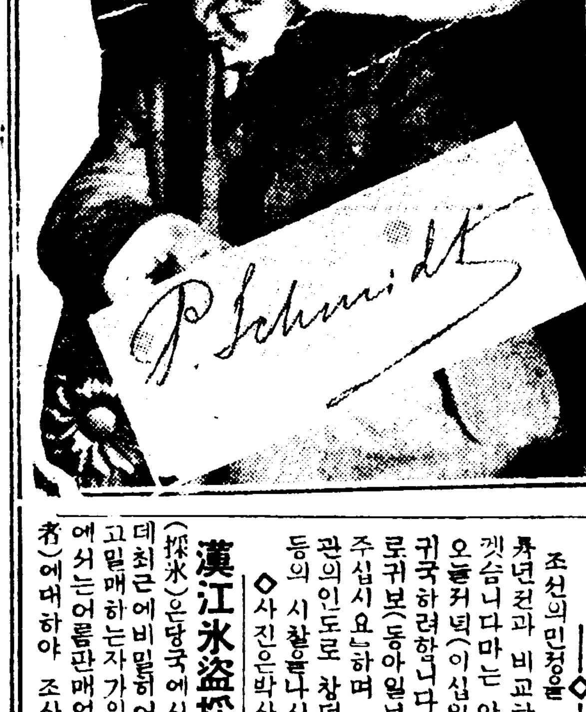
◇

그당시 아라사 뎨국총령사는『바울롭』이라고하는 사람이엿는데 마루이방(지금총령사사무실)에서 그이하고 이와가치말햇섯슴니다 감개무량하지요(하며 총령사의얼골을 바라보니 총령사 도빙긋이웃는다) 그당시서양사람이라고는 십지를곱지못할만치적엇슴으로 일반한국사람들은 뒤로따라다니며 구경을합되다 나는학자임으로 그정치문데는 전연몰랏스나 그때이곳(총령사관)이 정치의중심디가치 복잡하게보입되다 조선인상말슴입니가 주마간산식이니 오직뎐도가개통하고뎐신뎐화가개통하고 자동차가개통하고 큰길이뚤리고 서울이구라파식으로 일본식으로 개화하엿다는것이나 인상이라고할가요

◇

조선의민졍을 시찰하야 이십륙년전과 비교하여보앗스면조켓슴니다마는 압길이총총하야오늘저녁(이십일밤)특급으로 귀국하려합니다 조선의긔념으로귀국보(동아일보)나 몃장붓쳐주십시요하며 부령사와 통역관의인도로 창덕궁이며박물관등의 시찰을나서더라

◇사진은박사와자서



漢江氷盜採

한강의채빙(採氷)은당국에서금지하는중인데최근에비밀히어름을떼여가지고밀매하는자가잇기때문에당국에서는어름판매업자(氷販賣業者)에대하야 조사하는중이더라

趙高藥

皮膚病 尿病 花柳病 醫學博士 渡邊晉 午前九時부터十二時까지 午後三時半부터六時까지 日曜日은午前中 京城黃金町二丁目 電話本局八八九番

高木은農家興振에 大福音
本園은開園以來로諸賢의愛護를蒙하와日進繁昌하옵기感謝하온意를表하기爲하야本年度産品은特別廉價로提供하겟사오니勿失時期하시고從速注文하옵심을仰望하나이다
定價表는請求에依하야無料進呈함
開城郡池町二三〇番地 高麗園白

開業 朴鏞洛醫院 醫師 朴鏞洛 慶南泗川郡邑內平和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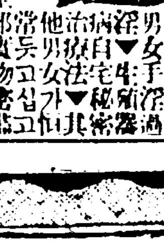
生徒募集 官立 京城法學專門學校 募集人員 第一學年約七拾名 出願期限二月十日 詳細는十二月一日의官報參照又는本校에照會할事

合華椒粉 料理用 반찬用 된장 에最適 僞物이有함으로票에注意하시압 大阪天滿市之側 黑川與兵衛商店

急告
我朝鮮內地同胞의福利를爲하야蹶起한本社의事業 朝鮮、大阪間商品賣買代理及確實한商店紹介並調査 大阪에勤務先奉公先紹介並職業調査 大阪에在한貸借關係及取立代理 以外如何한事項을不拘하고取扱함 案內書送呈 大阪市東成區南島町一八一番地 共利社

內職 材料貸附 收入確實 老若男女自宅에서容易히되고永久無限好副業 見本說明書郵券十錢 ▲特約代理店募集 東京本鄕元町二ノ六 足立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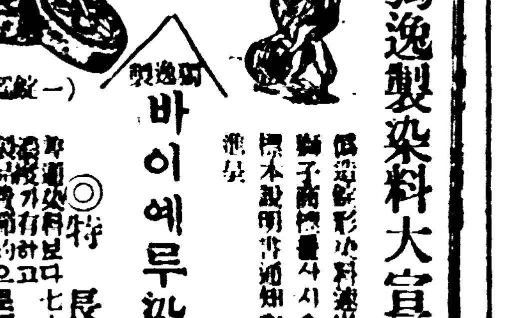
兒孩바라는사람도보라 니바라는사람도보라 男女生殖器鮮圖 (附錄)◆◆◆ 性交法의研究 避姙法의研究 花柳病豫防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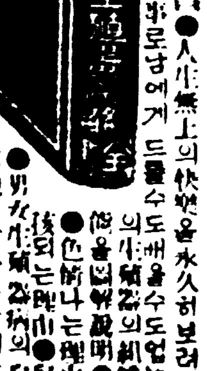


◆注意 美人▼體寫眞 東京赤坂丹後町 振替東京二二三二 東興堂

最高優良品新着 참말갑싸고時間잘맛는 瑞西國最近製品中의明星 品質優秀 價格低廉
十八金片치마票 特價金二十石16 銀片치마票 特價金十八石16 닉겔片치마票 特價金十七石16
十八金腕卷치마票 特價金十五石10 銀腕卷치마票 特價金八圓五十錢 닉겔腕卷치마票 特價金七圓五十錢
京城府鍾路二丁目一七一 信鍾堂時計舖 電話光化門一九八二番 振替京城一一八九二番

먹어본후의마음에 比較하야보면 일즉못먹어본것이恨인 도쓰가빈


獨逸製染料大宣傳 獨逸製 바이예루染料餅 (一卷圖) (一餅圖) ◎特長◎ 獨逸바이엘染料製造會社代理店 京城本町一丁目 高木商店染料部


●新婚及未婚의男女는꼭보라 男女生殖器圖解研究 景品美人裸體寫眞 發賣元 福進堂

Ford

포-드

포-드定價大引下斷行

(即日實施)

昨年中의大量販賣에依하야生産原費減少。
此差額을定價에引下。

昨年中約一萬臺의「포-드」乘用車及貨物車의販賣는弊社의生産及販賣上에큰好影響을주엇습니다。이리하야弊社는生産及販賣費用을減少하게되엿습니다。그런故로弊社는年來의商策에依하야이러한所得差額을定價引下의形式으로顧客各位에게配當합니다。

新定價

포-드、토-링	金千六百十圓
으런아바옷트	金千五百二十圓
쎄단型(二扉附)	金二千三百七十圓
쎄단型(四扉附)	金二千五百七十圓
半噸검머쉘、섀시	金二千二百四十圓
一噸추럭、섀시(스탓터-無)	金二千三百十五圓
一噸추럭、섀시(스탓터-添附)	金二千四百六十五圓
포-드손、추랙러-	金千七百三十圓

(以上京城又는釜山賣渡價)

爾來弊社에서發賣하는「포-드」車는全部홀니式熱板噴霧器「홀니헛、폴네잇트、베포라이여-」를具備하여서舊來의氣化器及多岐管을廢止하고그代用으로採用한것입니다。그利益의主要한點은第一개솔닌을瞬時에蒸發噴霧狀으로化하는故로一껠논에對하야四哩乃至五哩이增加됩니다。또始動은至極容易하고車는平靜하게走行하고煤煙은거진생기지안음니다。

또다시披露할大改良은今後「포-드」車體는「파이로기시린」法에依하야外塗를함니다。「파이로기시린」塗는繻子와갓흔光澤이잇는漆인대塵埃、油脂、泥砂等이附着하지안음니다。「파이로기시린」塗는使用할수록漸漸조화지며、普通水로洗滌하면光澤은一層美麗하게됩니다。「포-드」乘用車體는모다此「파이로기시린」法으로數種의美麗한色으로漆함니다。

只今이此大改良車를大引下한新定價로求하실수잇는絶好機會임니다
最寄「포-드」特約販賣店又는썸及써-븨스쎌너로오시기를願함니다

포-드特約販賣店
株式會社쎄일商會
京城竹添町一丁目七五番地
私書函西大門第九號
電話光化門三六九・一六一九

販賣所
京城鍾路四丁目壹番地
電話光化門一三三二
써-븨스及썸쎌너-
全朝鮮

日本포-드自動車株式會社

事業成功者列傳

蠶業에 攄得하야 全洞里가 養蠶村 (二)

—十八—

八十七戶洞里에 八十戶가 養蠶 講習所設置하고 婦女들도 敎授

蠶業成功家 安城 閔泳鍾 氏

◇四、蠶繭 初年에는 技術이 不足함이지 蠶種一枚에 不過二、三斗에 지나지못하야 其時에 收繭한 金額이 二十餘圓이며나 昨年에는 蠶種一枚平均六斗로 七石八斗餘의 收繭으로 六百五十餘圓의 收入이되고 夏蠶은 販賣치아니하야 알수업스나 收繭石數四石으로 時價로 換算하면 二百九十餘圓은 된다고 한다 蠶繭은 全部를 共同販賣에 附하고 屑繭과 汚繭은 販賣함이 損임으로 製絲하야 販賣함이 有利하다고 한다

◇五、製絲 製絲를 始作한것은 別로 製絲利를 取得코자 함이 아니라 賣繭時價가 下落함으로 그런때에는 製絲하야 物價의 上昇을 기다리고 또 前記와 가치 汚繭屑繭을 製絲하려고 再昨年부터 始作하얏는데 再昨年에 製絲石數五十石으로 純利益이 四百餘圓假量이엇스나 昨年에는 絲價暴落으로 아무 利益은 아니하엿스나 多少損이 잇슬것갓흔데 本是少資本임으로 貯藏할수도업고 할수업시 販賣하려한다

不過幾年內에 資本이라고는 別로업시 經營하야 蠶業과 製絲를 竝하야 現在에는 年收入이 一千二百圓인데 將後에도 더 擴張하려고 昨年春에도 四千本의 桑苗를 田作으로 植付하엿다하며 一般農家에 蠶業을 奬勵普及시키기 爲하야 蠶業傳習所를 設置하고 蠶種法 桑樹栽培法 製絲法 蠶具製造法等을 敎授하고 修了生 再昨年十一名 昨年十名을 내여 蠶業敎師로 採用케 斡旋하며 或은 自己製絲場에 採用하며 또 蠶繭을 評査케 周旋한다 그리고 大正十四年十一月 安城品評會에서 特等賞을 엇고 昨年秋에는 桑田品評會에서 一等一頭를 어덧다 한다

寫眞=閔泳鍾氏

成功은 只今부터

더욱 장려코저 합니다

閔泳鍾氏談

제가 오늘 이만치 된것은 百難不屈의 除滯인가 합니다 처음에는 참 微資本이엇습니다 只今 桑苗一本에 補助金을 除하고 二錢인가 듭니다마는 其時에는 資本이 어되잇섯습닛가 그래서 桑苗를 따모아 이것을 빌려서 植栽한것이 始作입니다 始作이 半이라고 其後부터는 收入金으로 桑苗도 사서 심으고 田地도 買入하고 蠶室도 建築하엿는데 其間에 失敗도 數年잇엇스나 到今 全資產을 合하야 四圍內外나 됩니다 成功은 只今부터이고 實收入도 只今부터이지요 其前은 生活上 또는 斯業經營上 蠶種資本으로 다 썻습니다 何如間 우리 安城은 農事以外에 다른 副業이 업서서 不過貧寒落의 小作을 하야 債務로 다 갑하버리고 빈ㅅ만 가지고 살아서는 사람이 살만습니다 그러나 다행으로 蠶業이 副業임으로 나도 더 擴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勸誘하려 합니다 우리 洞里는 山間임으로 참 살기 困難하더니 이 蠶業의 發展으로 生活이 아니하는 집이 업게되엿습니다 우리 洞里에서는 每戶 二百枚는 다 養蠶을 하야 春夏秋蠶을 合하야 二百枚로 年收入六千圓假量으로 漸漸 生活이 富饒하아집니다 나의 經驗과 將來를 特히 말할것은 업지마는 우리 洞里는 蠶業組合을 組織하야 共同購入과 販賣를 行하야 옵니다 다른 知己人士에게 만히 勸誘하야 蠶業을 만히 普及키로 합니다 大正十四年부터 當局의 補助를 若干 바다 女子蠶業講習所를 設置하야 每年 十餘名式을 修了케하니 不遠將來에는 우리 農家의 經濟破滅에 幾分이라도 恢復될가 합니다

◇投稿者◇ 安城 金寬植

◇薄謝◇ 本報購讀券 三個月分

巡廻採訪 ——(二百三)——

停車場近處부터 日人이 蠶食

大悟를 要할 우리 (8)

水原 一記者

◇鍾路敎會 우리 水原에 基督敎가 들어오기는 至今으로 三十餘年前이니 光武五年봄에 米國宣敎師 邊兆萬牧師가 京城에 住居하면서 主日마다와서 傳道에 盡力하엿다 그러나 基督敎의 敎理를 理解가업는데 林러 儒敎와 佛敎가 잇서 오직 異敎로만 틀려보냇섯다 그러나 時日을 지남에 따러서 西洋사람의 敎訓가 잇슴을 알고는 예수를 맛게다는것보다도 그 權威를 조케 利用해보겟다는데서부터 發展한것이 차츰 차츰 敎會를 맛보는데까지 이르러 北門안에 草家한채를 사서 主日마다 비로소 禮拜를 보는 處所를 定하엿스며 光武九年에 와서는 現在 敎堂인 鍾路로 移轉하엿고 隆熙三年에 至하야는 三一男女學校까지 經營하게 되엿스니 當時에 잇서 特히 敎會와 學校에 만흔 努力을 한이는 林景瀛氏이라 한다 이갓치 發展하여내려온 敎況은 至今에 六百餘名의 信徒를 가지엿스며 擔任牧師 宋得禮氏 外에 副牧師가 잇서 七個에 갓가운 老階이지만 오로지 敎會에 暇업시 치여부조하이 傳道事業에 全力을 다하는中이라한다

◇次回는 禿山◇

◇聖公會 至今으로 二十二年前 西曆一千九百四年에 英國人主敎 端甫德氏가 同敎會傳道師 宋世俊氏를 派送하야 布敎를 始作한바 처음에는 安應甫、長之里에다가 草家大間의 敎堂을 設하고 金仁順、金善京氏外 十九人의 信徒에 不過하엿스나 一九〇五年에 와서는 英國人神夫 在然(색라이릅)氏와 傳道師 金萬俊氏의 獻身的布敎로 信徒는 日增月加하야 一九〇八年에 이르러는 六百餘의 多數에 達하매 南門外八達山下에다 洋屋製로 聖堂을 新築하며 一端으로 進明男女學校와 女子孤兒院을 經營하게 되엿다 今日에 至하엿나니 現在에는 神父 金仁淳氏外 二人의 傳道師가 잇서 九百餘名의 信徒를 다스려간다 한다 所屬敎堂이 十個所라하며 敎育機關으로는 進明學院外에 講習所가 五個所에 紡績及織工所도 잇서 敎況은 날로 더욱 繁榮하여나간다고 한다

◇天主敎 天主敎가 水原에 드러오기는 六十餘年前 一八六六年(丙寅年)이라한다 當時에는 公公然하게 布敎조차 못하엿다하며 年祖가 김호니 만큼 敎況은 그리 發展하엿다고 할수업스나 現在 敎徒는 百三十餘名이오 法國人 神父 이루시 氏가 혼자 養育한 生活을 하여가는 中이라고한다

◇天道敎 天道敎는 乙未年 東學黨에 드러왓다고 한다 己未年 運動이 잇슨後에 少年團體와 靑年會外지 創立되야 한참 敎況이 隆興하더니 얼마지나지 안어 모든 活動은 有耶無耶로 드러가고 말엇스며 現在 敎徒는 六十餘名이나 잇다고하나 모든 活動은 亦是 그냥사고 잇는 모양이라고 한다

◇佛敎 家庭化하다 십히된 佛敎는 相當한 勢力을 가지고 잇는듯하나 正確한 信徒數는 알수업스며 大年前에 새로지은 布敎堂도 오직 쓸쓸할 뿐이다

◇堤岩敎會 己未年 三一運動을 말하는 사람마다 水原耶蘇敎會의 慘禍를 聯想치 안는 이가 업스며 當時 그ー當하든 光景을 듯는이 치고 痛憤의 치를 떨지 안는 이가 업스니 水原邑에서 西南으로 六十里 距離에 잇는 村敎會이다 信徒數는 二百三十餘名이나 되나 거이 女信徒뿐이니 男子는 己未當時에 禮拜堂에 불니여가서 불에 안자 祈禱를 드리는 가운데서 재가 되고 말엇다고 하니 이런 理由로 男子가 稀少하나 모다 깁흔 信仰을 가지엿다 하며 오랫동안 三一學校에 主任先生이든 劉富榮 傳道師가 擔任傳道師로 二年前에 被任된 以來 近日에는 더욱 敎況이 發展하여 간다고 한다

◇普天敎 普天敎가 우리 水原에 들어오기는 昨年봄에 各地에서 한참 排斥을 當할 그때엿스니 二三人의 상투쟁이가 와서 敎를 傳하엿스나 信者는 五六人에 지나지 못하엿스며 至今은 그도 업시 비인집에 오직 쓸쓸한 看板만이 부터 잇슬 뿐이다

◇神道 神道는 日本人의 敎라고 하니 信者는 日本人이 百三十餘名이나 잇스며 朝鮮人도 十七名이나 잇다는데 三個所의 神社가 잇다

聖公會孤兒院

高普豫算을 削減하야 日本人中學에 流用

◇道評議會의 重大問題 奇怪한 平南道豫算

平安南道 昭和二年度 地方費歲入歲出豫算에 敎育費를 前年보다 九千餘圓이나 增加하야 三十七萬五百五十五圓을 計上하엿스나 朝鮮人의 子弟가 通學하는 平壤公立高等普通學校의 學校費는 今年度보다 一千百七十圓이나 削減되여 從來의 實驗實習費에서 千二百圓外지 五百圓으로 減下하고 平壤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費에서도 今年度보다도 三百九十六圓을 削減하엿스나 日本人의 通學하는 平壤公立中學校의 學校費는 今年度보다 千五百四十一圓이나 增加하야 計上하는 外에 學校費補助中으로부터 日本人高等女學校의 增築費로 一萬七千圓을 計上하야 十九日午後三時頃 方今開會中의 道評議會에서도 큰 問題거리가 되여 當局의 偏頗한 答辯이 잇섯스나 二十日 繼續된 同會議에서 또한 큰 問題가 될모양이라는데 當局者의 答辯에 依하면 平壤公立中學校의 昭和二年度 學校費가 前年度보다 增加된것은 日本國民은 兵役의 義務가 잇는 以上 國民皆兵主義에서 日本中等程度學校에서 實施되는 軍事敎育을 前記平壤中學校에서 昭和二年新入學期부터 實施할터임으로 不得已 그갓치 는것이라하나 平壤中學校의 實驗實習費는 六百五十六圓이나 前年度보다 增加하고 朝鮮人高等普通學校의 實驗實習費 七百圓과 女子高等普通學校의 實驗實習費乃至 寄宿舍費 五六百圓外지 削減한것은 道當局의 心思를 모를 일이라 하야 物議가 紛紛하다더라 (平壤)

花平青年活動과 그洞里의援助

仁川花平青年會는 當地花平里青年으로 組織된 團體인바 그洞里에 對하야 여러가지 公共事에 힘을 쓰는바 그中에도 그洞里에 火災及盜難을 預防하기 爲하야 夜警을 巡班으로 하는 터임으로 그洞里團體及洞人으로부터 그會에 寄附한 金額이 二百二十六圓五十錢에 達한바 그것은 二十圓으로부터 五十錢에 이르기外지 團體及個人에 이르기外지 一百十七口에서 出捐한것이라 하야 該團에서는 그것을 感謝히 生覺하는 同時 그金額을 意義잇게 適用하리라더라 (仁川)

地方論壇

競賣所를 團束하라

大邱 一記者

一

大邱에 五六의 競賣所라는 것이 잇서 各各 人馬의 來往이 頻繁한 거리에 그 競賣所를 設하고 或은 蓄音機를 틀러노코 或은 狂歌와 가튼 무슨 소리를 버려노는 等 一種 醜怪한 方法으로 어리석은 村사람들을 모하게 한 後에 너커분한 綿緞布木其他를 競賣하고 잇다 여기에 挾雜이 잇는 弊害와 밋 거기에 對한 當局者로의 團束해야 할바를 일즉이 報道한 적이 잇슴은 아니라 적어도 機敏한 當局者로서 벌서부터 吾人以上의 察知한바이 잇슬터인데도 競賣軍의 雜行은 今日에 依然할 뿐이니 엇지 默過할 바이랴?

二

이에 다시 한번 競賣하는 裡面을 들추어 본다면 한 者가 壇에 올나서서 物件을 내들고 『얼마?』를 외치면 同類 몃 名이 買者처럼 꾸미어 呼價를 하고는 賣受하는 것 가치 하야 代金을 支拂하는 체하며 或은 빗사다는 것으로 안사고 마는 체하야 누가 보던지 物件이 헐하야 만히들 사가는 樣을 보이고 그리고 最初의 呼價가 相當하면 고맙다는 것으로 一二十錢짜리 手巾一枚나 비누 한 個式의 賞品을 呼價한 사람에게 주는바 그 呼價에 잇서 物件은 안사도 呼價相當히 하는 사람에게는 賞을 주는 것처럼 또한 꾸미어가지고 最初의 呼價는 勿論 部下者들이 하는데 여기에 이것저것 잘 모르는 村사람이 求景하다 賞品이 多少 口味에 들기도 하고 또 弄談삼아서 呼價보다 얼마 더 하야 부르면 競賣생이들은 처음 呼價가 元來 相當한 利益外지 집어너흔 部下들의 부르는 바이매 그우에 더 불너스니 온갓 挾雜의 根本意가 部下의 最初 呼價 다음에 그보다 더한다 다른 사람의 呼價가 잇기를 바라는 거기에 잇는데 이라 말이 써러지자 所期의 目的을 達한 競賣군들은 賣도 주기가 귀찬케 엇 物件을 만기어 노코 돈만 내라는 것이 그들의 競賣에 對한 最高의 方法이라 한다

三

그리하야 실턴지 조턴지 呼價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내주고 物件을 차저가버리면 此所謂官無事 村秦中趙이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나는 사기 실타하는 때는 『競賣所物件은 한번 呼價하는 것이 競賣契約』이라하야 以上 안살수 업는 일이라 하야 競賣軍卒들이 와ー둘나서서 可謂 威脅的으로 出金을 强要하야 맛참 所持金이 업스면 乃終에는 抵當物外지 빼아서 노코야 만다고 한다 抵當物 또한 가진것이 업스면 甚至於 손질外지 이른다고 하니 內地市街의 中에서 그와 가튼 可謂 挾雜輩의 跋扈와 橫行이 잇다는 것은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四

이것이 잘된 商行爲인지 아닌지는 取締의 任을 맛흔 當局者의 明哲한 머리로 잘 判斷이 될줄 안다 따라서 昨今日에 생긴 일이 아니고 昨今月에 생긴 것이 아니며 아가 昨年에 처음 잇는 것도 아니니 어니와 今年에 始生한 것도 勿論 아니다 그러나 이에 對한 當局者의 取締를 일즉이 듯지 못하엿스니 이라면 여간 등의 程度를 지나는 當局者의 心思를 아지 못할 일이다 勿論 그러한 厭棄에 걸니는 사람이 문인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人個個이 相當한 識見을 가지어 敗者被欺者와 如한이 잇슴은 理업다면 此를 同棄하는 當局은 무슨 所用될 것이냐?

江原道評議會 第二日

(平壤)

去十五日에 開會한 第七回江原道評議會는 地方費豫算編成을 說明한後 其翌日인 十六日은 休會를 宣하고 十七日 午前十一時十五分에 再次開會하여서 午前中에 道地方費歲入歲出豫算의 第一讀會가 갓나고 午後에는 質問戰이 開始되야 相當히 緊張한 場面을 이루엇는데 먼저 伊川議員 金永石氏의 『年年히 土木費는 늘어가 昨年과 갓흔 年度는 三十餘萬圓의 巨額에 達하야 그에 當用되는 人件費도 多大한 中 조곰도 其實績이 나타나지 안음뿐 아니라 돌오혀 道路의 狀況은 前에 比하야 말이 못되니 차라리 修路工夫와 갓흔것을 그만두고、昨年度의 土木費 二十萬圓의 使用處를 具體的으로 說明하라 京春間道路中 本道管內에 屬한것이 僅히 六里에 不過하나 多額의 工費를 들인것이 只今과 갓흔 狀態이니 道廳秘書問題는 當然히 이러나는 것이다』라고 當局에 肉迫하얏고 通川議員 石鎭夏氏는 奮然히 起立하야 『本議員은 京春間道路工費를 目擊하고 實로 遺憾되는 事이 만타 延長에 延長을 加한 竣功期限이 昨年十二月末日이엿는데 아직도 道路의 形體조차 作成치 못하고 겨우 險惡한 假道路로서 交通을 接續식히뿐이니 그것이 年年히 多大한 工費를 들인 道路인가? 該道路가 期限內에 竣功치 못하고 道民에게 不便을 느기게 한것은 全혀 當局의 無誠意에서 나온 結果라고 할수잇다』라고 詰難하다 各議員은 雨後竹筍갓치 當局의 無誠意를 肉迫하엿다 이에 對한 內務部長의 答辯은 詳細를 極하야 各議員에게 諒解를 求하엿스나 何等 徹底한 맛이 업고 難工事難工事로 柔順하게 방패막이를 하야 午後四時十五分에 閉會하엿다더라 (春川)

看護婦產婆科指定

釜山府立病院附設產婆看護婦養成所產婆科는 一月二十日附總督府告示第十二號로서 產婆規則第一條第四號의 規定에 依하야 指定되엿더라 但本指定은 昭和三年三月以後의 卒業者에 對하야 效力을 有하고 더욱히 同病院看護婦養成所는 同日附府告示로써 指定하엿스나 昭和四年三月以後의 卒業者에 對하야 效力이 잇는것이라더라

百十餘萬圓突破

客年舊馬山水揚高

舊馬山魚市場合資社調査에 依하면 大正十五年中 馬山朝鮮人魚市場總水揚高는 百十二萬二千八百八十三圓二十四錢에 達하엿는데 昨冬은 馬山特產物鮮魚水揚은 減少되엿스나 大正十四年度總水揚高에 比하면 十萬四千六百六十二圓二十四錢이 增加되엿다더라 (馬山)

陰曆正初에 라디오大會

三日동안 開城中央會舘서 開城本報支局主催

客年十月에는 開城의 初有事인 飛行大會를 本報開城支局에서 主催하야 空前의 盛況을 이루엇든바 今番에는 또다시 十四萬의 人衆으로 된 開城에 아즉까지 近代科學의 精粹로온 世界를 덥흘듯이 發達되는 『라듸오』의 紹介가 한番도 업섯슴을 本報開城支局에서는 遺憾으로 생각하야 오는 陰曆正月의 閑期를 利用하야 『라듸오』大會를 主催하고 一般開城人士로 더부러 現代文明의 利器인 無線電話의 一般智識을 修得코저 하야 來二月二日부터 陰曆正月初二日부터 初四日外지의 三日間을 中央會舘에서 公演하기로 되야 支局에서는 그 準備에 매우 奔忙中이라는데 公演初日인 陰曆初二日과 三日의 兩日間은 每日 夜間 一回式만 公演하고 最終日인 初四日에는 附近의 住民을 爲하야 特히 晝間과 夜間의 二回를 公演하기로 하엿다는대 晝間은 午前부터 開演하야 午後에는 聽話를 맛치고 足히 歸家할수 잇도록 計劃하야 市外人士에게도 이 좋은 機會를 놋치 안코 利用하게 한다하며 前間의 『라듸오』聽話가 끗난뒤에는 無線電話에 對한 機械의 原理를 通俗的으로 說明하야 『라듸오』가 엇더한 것이라는 것을 一般的으로 理解케 한다하며 開演時間의 順序와 種目과 詳細한 것은 京城放送局의 『프로그람』發表를 參酌하야 追後로 發表하리라더라 (開城)

平南道評議會 第三日

第七回平南道評議會 第三日(十九日)은 諸問質問別無인 故 午前十時부터 道廳會議室에서 開會되여 大正十五年及昭和元年度 平南道地方費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에 對한 若干質問이 잇고 一時閉會하엿다가 同午後一時半부터 再開하야 午前中에 質問하든 昭和二年度歲出經常部土木費 十四萬八千七百三十三圓中 各項目에 對한 質問應答이 잇섯는데 그中에는 橋梁破損狀態에 對하야 木造橋梁은 破損하기 쉬웁다하야 鐵筋『콩크리』橋梁을 모처럼 한것은 웨 그리 쉽게 破損이 되느냐? 同請負業者들의 責任期限을 延長하는 外에 當局의 嚴重한 監督이 如何? 라는 質問이 잇는 一方으로 一二等道路에 從來 『악가시야』나무로 『포프라』를 植樹하여 왓스나 今後로는 賣品인 桑木을 植付함이 如何? 라는 意見도 잇섯고 各自自己郡內의 橋梁道路改修를 要望하는 一方으로 土木費등의 緊縮 乃至 其他經費를 縮少하야 一般道民의 負擔을 輕減케 함이 如何? 라는 要望도 잇섯스나 結局 意見으로 聽取한다는 應答과 說明으로 同日會議는 同五時頃에 散會되엿다더라 (平壤)

新成學院悲運

經費困難으로 閉門地境

慶南固城郡巨流面에서는 兒童의 敎育機關이 업섯슴으로 배움에 목마른 無產子女는 배움의 길을 엇지 못하야 東西를 徘徊하며 南北을 彷徨하여 牧者를 일흔 어린 羊과 갓하야 愛의 恨과 同情의 눈물이 잇는 者로서는 도저히 볼수가 업슴으로 이것을 覺悟한 同面新龍里 李正植 金元俊 金相寬外 數氏의 努力과 新龍華塘兩里有志者의 熱誠으로 大正十年十月에 비로소 新成學院을 設立하고 爾來 만흔 人才를 養成하야 第二回卒業生을 보게되엿스며 莫大한 基本金이 積立되여 前途가 有望하엿스나 昨年冬期 同面學校期成會에서 某事實로 積立金을 此에 充當하게 되고 兒童을 驅出하야 그學院을 解散하게 되여 元新里에서 殘金업마로 外引受經營케되엿스나 今日에 至하여는 熱誠은 次次 식어저 날로 運命을 재촉케되엿스며 따라 院長 李正植氏의 他地로 移居케됨에 따라서 新成學院은 最後의 運命을 告하게 되엿다는바 兒童들은 눈물을 먹음고 責任者의 處理如何만 바라고 잇다더라 (固城)

結婚과離婚

離婚八十七件

十餘萬名의 市民을 包容하고 잇는 平壤府內의 昨年中 異性의 配合으로 花燭의 典을 擧한 婚姻이 實로 五百七十件에 達하는 反面에 百年을 偕老할수 업다는 呪咀로써 헤여진 離婚件數는 協議、裁判을 合하야 實로 八十七件에 達한다는바 그中에는 裁判離婚件數가 十二件 協議件數가 七十五件이엿다하며 그를 前年에 比하야 十數件이 增加하엿다는데 그를 取扱한 平壤府戶籍係員의 말을 드르면 離婚件數는 날로 늘어가는 中 그의 最大原因은 當事者들의 意思를 尊重치 안코 父母들이 마음대로한 不合理의 結婚이기 때문이라더라 (平壤)

泗川醫院設立

五千餘郡의 住民을 가진 慶南泗川에는 一軒의 病院도 업서 患者의 不便이 甚多하더니 今般에 京城醫專을 卒業하고 積年間 晋州培設病院에서 勤務하든 朴鍾洛氏가 泗川邑平和洞에 醫院을 設立하고 今月二十日부터 開業하야 病魔에 呻吟하는 不幸者의 救濟에 盡力한다더라 (晋州)

笠岩青年會

去十七日創立

井邑郡笠岩面에 居住하는 人士는 靑年敎養機關이 업슴을 遺憾으로 알든바 同面 川原里를 中心으로 隣接한 各里靑年들의 發起로 客年末부터 以來 創立準備에 奔忙하던바 去十七日午後二時에 川原里 禮拜堂內에서 柳然基氏 司會로 創立總會를 開한바 會員은 五十六人이며 傍聽席에도 滿員을 이룬 盛況裡에 無事히 進行하고 全北靑年聯盟代表 根成龍氏 祝辭와 會員中 遂具結氏 答辭가 잇슨後 無事히 閉會하엿다더라 (井邑)

載寧郡聯委員會

載寧郡青年聯盟第二回執行委員會를 去十三日午後八時에 任利準氏司會로 開하고 左記事項을 同十時에 決議하고 閉會하엿다더라 (載寧)

◇決議

一、朝鮮青年總同盟에 加盟의 件

一、黃海道西部青年聯合會 加盟의 件

一、載寧郡青年雄辯大會開催의 件

一、安寧水利組合貯水池에 關하야 聲討文을 社會에 發할 것

一、其他

平壤의 諸統計

昨一年中 發生한 것

出生과 死亡

出生者가 만허

昨年中 平壤府內의 出生者數는 朝鮮人男女 二千五百九十五名、日本人男女 二百八十三名 其他男女 二名 都合 二千九百四十名이요 死亡者는 朝鮮人男女 一千九百二十五名、日本人 三百四十三名 都合 二千二百六十八名인바 結局 世上을 도라간 사람보다 世上을 차저온 出生者가 六百七十二名이 만헛는데 그를 前年 即 大正十四年度中에 比하야 出生者가 百六十二名 死亡者가 六百名이 各各 增加하엿스며 出生은 一年中 三月이 第一 最多하엿고 死亡은 四月이 最多이엿스나 出生이 第一 적기로는 六月 死亡이 第一 적기로는 十月이엿다하며 朝鮮人 出生率은 大同少異하나 死亡率은 女子보다 男子가 만헛다더라 (平壤)

排泄된 糞尿

十四萬七千石

平壤府民 十一萬四千六百七十一名의 昨年一年間 排泄한 糞尿는 實로 十四萬七千二百二十七石에 達하야 一年間 一人平均一石二斗八升에 該當하는 糞尿를 大同郡龍山面 大䑓領里附近에 搬出되여 다시 一般商民들의 食卓에 오르는 野菜類가 吸收하야 그를 다시 먹게되지만 그 糞尿는 年年 競爭入札에 附하야 大正十五年度分도 旣爲 六萬千圓에 落札이 되엿스나 그를 處分하는 一方으로 그 處分費로 七十錢을 消費하는 셈이라더라 (平壤)

靑年會館買收金補助

金泉郡金泉面黃金町 根昌樹氏는 元來慈善心이 豊富하야 社會事業에 만흔 同情을 하야 오든바 金陵青年會의 基地가 歸屬하든 것을 年賦로 買受하야 每年 三十餘圓式을 支拂하든바 昨年度에는 支拂期日이 經過하야도 至今外지 支拂할 方途가 無하야 執行委員 諸氏가 極力으로 同情을 求하든바 이 말을 들은 前記 根氏는 自請하야 現金 三十一圓二十五錢(昨年度、年分)을 同情하야 오래동안 苦痛하든 年賦金을 無難히 支拂하엿다더라 (金泉)

殖產組合發起

黃州에는 近年에 와서 組合이 생기는 傾向이 잇서 貯蓄機關 或 各其所定의 資金을 拂込하야 資本金을 成立되는바 本組合 名稱으로 各其商業의 繁昌을 爲하야 資本金 一萬圓을 積立한 產業組合을 爲始하야 保信、昌信과 日新、五人、四人組等이 有하야 都民의 勤儉貯蓄心을 奬勵한다는데 去十八日正午에 黃州邑內 金義植氏家에서 殖產組合發起人會를 開催하고 協議한 結果 申請人 金五圓式을 拂込하되 資金拂込期間은 今月부터 滿三個年 組合存續年限은 滿十年、創立委員 趙東漢外 四人을 選擧하고 午後三時에 閉會하엿다는데 即席에서 百餘口의 申請이 有하엿다더라 (黃州)

東萊歌鬪大會

慶南東萊에서는 佛敎靑年會主催로 오는 陰曆新年에 윳노리로 歌鬪大會를 佛敎布敎堂內에서 開催한다는데 申請期限은 陰正月二日外지라더라 (東萊)

湖南地方

◎金堤支部創立 金堤에 居住하는 井邑農業學校卒業生은 二十六人에 達하는바 五日前부터 金堤驛前 洛春旅館에서 井邑農校校友會金堤支部創立總會를 열고 朴性昆氏 司會下에 役員五人을 選擧하고 同七時에 閉會하엿다더라 (金堤)

◎咸平殖產會社創立 지난十三日午後二時에 咸平面內 楊里 氏家에서 同殖產株式會社創立總會를 열고 諸般業務進行事項을 充分히 討議하고 閉會하엿다더라 (咸平)

◎全州醫院新築費 全北全州道立醫院新築問題에 對하야 來十七日午後一時에 全州郡廳會議室에서 有志諸氏를 會合하고 同病院新築寄附金에 對하야 協議코자 한다는데 全州郡의 寄附豫定額은 三萬九千八百圓이라더라 (全州)

◎麗海線路修築終了 全南高興郡의 南方幹線인 麗海線은 道路가 된 後에 次의 修築이 업섯스며 破損 或은 凹凸이 만하야 諸車와 行步에 大困難이더니 今番에 古邑面에서 人夫數千名을 使用하야 改築을 한 結果로 只今은 極히 조흔 道路가 되여 通行의 便利하다더라 (高興)

◎殖銀群山支店落成 朝鮮殖產銀行群山支店新築工事는 近日竣工되야 來十六日에 新築落成式을 擧行케 되엿다더라 (群山)

◇地方短評◇

◇平壤• 平南道評議會에는 高普敎育費를 削減하야 日人中學校에 添加한 豫算을 提出하엿는데 이것이 東洋平和를 爲함이라고? 里江山을 料理한다는 大利權의 大收穫이라고

◇全州• 鳳凰面 ... 는 사람은 빗쟁이의 催促이 심하야 ... 自己집에 放火를 하고 나서 겨우 ...

◇仁川• ... 로 느리가는것은 ... 人品의 ... 이라고 ... 보는군!

● 取消 本報 ... 記事中 ... 는 ... 이기 ... 取消함

□내고장의風俗習慣□

投稿隨意(但葉書)•薄謝進呈

福盜賊

◇정월보름날이면 各地方을 따러서 여러가지의 風俗習慣이 잇지만은 내고장에는 이상스러운 일이 잇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男女老少할것업시 커녕을일 죽먹고 福盜賊질을 하러 나감니다

◇그런데 물가튼것이야 얼마길어간다야 관계가 업지만은 나무나 기와장을 작구 가져가서야 누가 조와할 사람이 잇겟슴니까?

◇그와 닭에 훔쳐갓네하고 싸홈질들을 하는것이 례사임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이 『복도적』 핑계를 하고도 적질들을 엇더케 하든지 警察에서는 巡査의 非常召集을 하야 警戒外지 하게되엿습니다

◇대보름날에 富者집에 잇는 나무(薪)나 기와 (瓦)나 혹은 우물의 물을 훔쳐오면 그해안에 그 富者집가치 잘된다는 것

◇婦人네들은 富者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男子들은 富者집 헛간의 나무나 혹은 기와를 나르고 노라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복도적』이 아니라 『화(禍)도적』이 되고 말엇습니다 (東萊 金秉錫)

醫學界의 最高權威
仁丹의 體溫計
醫學博士 杉本、平田 兩博士 監修
醫學博士 廿大家의 實驗推奬

仁丹のハミガキ

完全한 懷中藥 仁丹

그 행 문 (二)
경성에서 시카고까지
위슬리안대학에서 박인덕

◇차츰 갓가워지는 안개의 싸힌 위상학(桑港)이 신상 긔대려마저 주는이는 엇지건만 갑판우헤나 와 반츄을주며 도착될 정각을 조히긔대려 미국의 따— 음 사자한 '헬벵'이 [illegible] 번화의 도시에 발을 나려 노키는 [illegible] 멋칠을두고 이곳서 구경하고 또다시 큼직한 [illegible] 명소(名所) 고적(古蹟)을 [illegible] 맛조흔 포도를 실컷 먹은 후 시 여일만에 '시카고'에 이르니 밧분 시민들의 활동은 거름 차 밧버보이고 산 것 갓습되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더 생활 ! 엇더한 로동을 한들 힘이 들게 습닛가 힘드는 줄 모르는 유희나 모통이 겟지요

◇동생 ! 우리의 삶길을 위하야 더 잘 삶길을 위하야 남 모르게 항상 애쓰는 동생이여 ! 우리의 오늘이 언제나 가고 행복된 그날의 새 [illegible] 찬란한 새 살림사리를 버리고 살게 될 것입닛가 ! 동생 ! 그들의 생활과 우리의 생활을 서로 견주어 비길 바도 아니지만 그 거리가 먼 것은 실상 그들의 생활이 그다지 우월하고 고귀하 [illegible] 이것만 도 아니겟지요 우리의 생활이 넘우도 향상되지 못한 탓이겟지요 남들의 잘 사는 것을 보고는 부럽다기보다 오히려 고통을 밧게 되는 우리중에 하나인 배형은 그곳서 오래 머므르지 안코 곳 이곳 학교로 와서 십년 가까이 [illegible]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공부하는 말이 낫스니 학교 타령이나 하여 볼가요

◇우리 학교라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이 '웨슬니안' 대학은 미주 동남에서 녀자대학으로는 가장 [illegible] 만 아니라 일즉 일천팔백 삼십칠년에 창립되여 녀자대학으로는 세계 더 가장 오래된 [illegible] 대학입니다 그러하야 오는 일천구백삼십칠년이 창립 백년째 되는 해임으로 그를 긔념코져 [illegible] 고 그곳에 백년 긔념관을 [illegible] 원 예산으로 지난 가을부터 그 공사를 시작하엿담니다 그래서 일전 교당 선생님과 갓치 '카-'를 타고 그 구경을 나갓는데 공사를 신속히 하야 제가 졸업할 때 년은 준공될 터이라 하니 다 그러면 그 신축된 백년긔념관에서 졸업을 맛게 되겟지요

◇우리 학교에는 헤염을 칠줄 아라야 하고 [illegible] 아라야 한다나요 그러하야 해수욕을 배우지요 그리고 궁술(弓術)을 배우지요 해수욕복을 닙고 물에 풍덩 뛰여드리 진주 갓고 비단 갓흔 물살을 이르키며 헤엄을 [illegible] 상쾌하고 시원한 맛이라고는 [illegible] 더구나 어쩌 방은 매 강당에서 각 학년이 서로 경쟁녀 연극을 하는데 이 누이도 그 틈에 [illegible]

◇연례(年例)로 하는 [illegible] (以下略)

(사진은 [illegible])

토끼타령 (一四)
傳說의 擴布上으로보는 人類文化의 原始世界性
崔南善

◇그런즉 나무人집을 진채 月中으로 쏫겨 들어갓다 하는 말은 무론 훨신 後年의 添加로 생각할 것이겟는데 獨逸語로 滿月을 봐델(Wadel 또 봐델 Wedel)이라하야 그 語義에 「나무人단」이란 뜻이 잇스니 [illegible] 月中에 나무 [illegible] 民族이 비로부터 [illegible] 친 사람이 잇슴을 미든 줄로 생각하는 이도 잇다. 그러나 우리 생각 가타서는 獨逸의 이 이약이는 印度에 月中兎古談과 한가지로 그 한 部分이 [illegible] 誘致된 것입에 [illegible] 케인(Cain)이라 [illegible] 이라한 [illegible] 說話가 그 「모치포」에서 獨逸의 傳承에 相符함을 보니 (一) 陰影을 人物로봄, (二) 修行의 破戒로 쏫겨 들어간 사람으로봄, (三) 나무실는 [illegible]

◇자미잇는 것은 獨逸의 이 古談과 支那 月桂 傳承과의 近似한 點이다. 西陽雜俎(天咫篇)에 舊言月中有桂、有蟾蜍、故異書言、月桂高五百丈、下有一人、常斫之、樹創隨合、人姓吳名剛、西河人、學仙有過、謫令伐樹、釋氏書言、須彌山南面有閻浮樹、月過樹、影入月中、或言月中蟾桂地影也、空處水影也、此語差近

이라하고, 瑯邪代醉篇(一)에 (四)永遠히 풀리지 못한 罪의 [illegible] 常한 偶合 갓다가 어려울 뜻하다. 太平御覽(四)에 引한 [illegible]의 天安論에 俗傳月中仙人桂樹、今視初生、見仙人之足、漸已成形、桂樹後生焉

劉禕飛雲錄、載杭州靈隱寺月中墜桂子事、似涉怪異、本草圖經云、江東諸處、多於衢路間拾得桂子、破之辛香、古老相傳、是月中下也、不知當時何以獨有寰中月路耶、餘杭靈隱寺僧云、種得一株、近代詩人多所著述、漢武洞冥記云、有遠飛雞、朝往夕還、常含桂實、歸於南土、所以北方無之、南方月路、周宣有也、月路之說尤怪異、白樂天詩、偃蹇月中桂、結根依青天、天風絳月起、吹子下人間、白詩云、杭州天竺寺、有月中桂子、又詩云、子墮本從天竺寺、根盤今在闔閭城、當時應逐南風落、落向人間取次生、皮日休詩云、玉顆珊珊下月輪、殿前拾得露華新、至今不會天中事、應是嫦娥擲與人

이라한 것들처럼 支那에서는 月中桂가 그 香과 子를 風便에 人間으로 보낸다 할만치 實在性을 가지게까지 되엿다.

◇이것이 진작부터 朝鮮으로 들어와서 달아 달아 밝은 달아 李太白이 노든달아 저긔저긔 저달속에 桂樹나무 박엿스니 銀독긔로 찍어내고 金독긔로 다듬어서 草家三間 집을짓고 兩親父母 모셔다가 千年萬年 살고지고 하는 最普遍한 童謠를 머리로하야 短歌雜歌 其他 民謠에 桂宮姮娥가 [illegible] 보게되엇슴은 이제 煩說할것업는일이다 다만 우리의 設想과가치 支那의 月桂說과 獨逸의 [illegible] 사이에 一脈의 通行이 잇는 것이라한다면 [illegible] 朝鮮人의 [illegible] 자미잇는 聯想을 할수잇슴이 한 興이라할 것이다

가뎡고문

(문) 남편이 실혀하니 어지할가 [illegible]

(답) [illegible]

감긔와 음식【一】
약보다도 더 주의할 음식

감긔는 [illegible]

短篇小說 짓밟힌이의우슴 (一)
懸賞二等當選小說
◇京城 李文

[illegible]

허생뎐
—(19)—
역무일파

一、만량으로 조선이 흔들이며

二、회계하여 보라는 허생원

三、주와서 날뛰는 [illegible]

四、허생원의 일홈이 퍼지다

耳鼻咽喉科專門 醫學博士 坂井淸 坂井醫院 入院隨意 診察時間 午前九時ヨリ午後三時マデ 午後六時ヨリ午後九時マデ 京城南大門通 [illegible] ビルヂング

木材 ◇昭和初荷奉仕的大賣出 板一坪 六十錢 七十五錢 九十五錢 其他 建築、家具、製函、用材豫備充實 京城府古市町 電話本局長一八一番 材木商 熊野商會

生의復活—悲觀으로樂觀 精力 活力의 源泉 一日就寢前服用의 에모고-루 作用 生殖器의障害 生殖器性神經衰弱 婦人性的缺亡 老者도少年으로 壯者는益益壯 無上의爽快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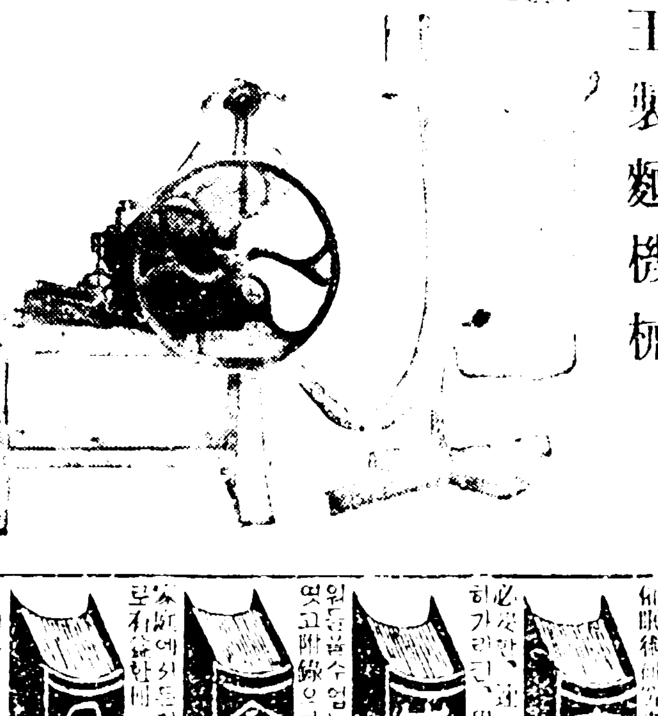
定價表 十回分 金參圓 廿回分 金五圓 四十五回分 金拾圓 百回分 金貳拾圓
大日本總發賣元 柴崎仁壽堂大藥房 朝鮮支店 東京支店 大阪支店 滿洲支店 附屬醫院

果樹苗木 豫約募集 安山農園 說明書 定價表無代進呈

◇陰正月贈答好適品 美國製의다만萬年筆 七圓五十錢以上 파이롯트萬年筆 二圓五十錢以上 세-라-萬年筆 一圓以上 萬古綠出鉛筆 五十錢以上 市內見本持參 地方代金引換 目錄進呈 京城鍾路二丁目 楠商店

不知는 紳士의 恥! 不服은 一生의 損 トッカピン

八谷工場拾周年記念의會社奉仕 五割五分引放賣 (定價에서) (割引新定價) 甲號 金貳百拾圓也 乙號 金壹百七拾參圓也 丙號 金壹百六拾圓也 丁號 金壹百參拾四圓也 十九年式 金壹百拾圓也



親玉製麵機械 八谷工場 ◆廣告도記事

果樹苗木 豫約募集 (目錄無代進呈) 興林農園

團成社 豪勇無雙 決死의奮戰 狂亂의天才 深紅의光線 有爲轉變 特別豫告

朝鮮劇場 大白薔薇 勝利者 特別豫告 放浪者 大地는怒함 不忘曲

天下無類 大廉價特賣 拾冊組合에 但只貳圓
男女隱し藝全書 男女秘密百科全書 男女の手紙 夫婦和合の秘訣 子の生まれる法 催眠術秘傳獨習書 生殖器圖解研究 食パンと菓子の製法 日常便利辭典 發行所 國民社特賣部

染料 都賣 東華洋行 割引表進呈

萬世고무

白頭山覲參 (八七)

崔南善

久遠朝鮮그것!

白頭山의記載는[illegible]의古籍에는山海經에비롯하나니그大荒北經中의

大荒之中、有山、名曰不咸、有肅愼氏之國、有蜚蛭四翼、有蟲獸首蛇身、名曰琴蟲、有人名曰大人、有大人之國、釐姓、黍食、有大青蛇、黃頭食麈、

라한것이그이데 不咸은「붉은」의譯音이오「붉은」은天主的神明을意味함은 前에말햇든것과가트니 山海經에는荒外의山이라 자세한記錄이업스되「붉은」이란一語와 및稱名을가진諸山間의 民俗的事實로써 그진작부터神山이든名實을짐작할것이며 또「붉은」의名으로써傳하는山이 이한아임으로써그代表的最高者인消息을엿볼수잇나니할것이다 同書의

崑崙之丘、是實惟帝之下都(西山經)

帝下遊…黃帝所從上下也(海外南經)

東海之外、大荒之中、有山、名曰大言、日月所出、有波谷山者、有大人之國(大荒東經)

大荒之中、有山、名曰豐沮玉門、日月所入、有靈山、巫咸、巫即、巫肦、巫彭、巫姑、巫眞、巫禮、巫抵、巫謝、巫羅十巫、從此升降、百藥爰在(大荒西經)

함한것은

三神山者、其傳在勃海中、…諸僊人及不死之藥皆在、其物禽獸盡白而黃金銀爲宮闕(史記封禪書)

崑崙之山、有銅柱焉、其高入天、所謂天柱也、圍三千里、周圓如削、下有回屋、方百丈、仙人九府治之(神異經中荒)

泰山一曰天孫、言爲天帝孫也、主召人魂魄、東方萬物始成、知人生命之長短(博物志地理略)

이라함과合하야 白頭山의信仰的內容을짐작케하는古聞終의好資料이다。 여기일은바聚싸의上下와 다른데적은列仙의朝會란것이 後世의說明이라하는것、[illegible]외오라가는것、巡禮라하는것으로、新羅國仙의「遊娛山水無遠不至」라함에當하는것일은여로말할것도업는일이니 白頭山의說給은실로遠古로부터의承認한國土的修行이엇섯다

그다음엔徒太從太과는勿吉名으로唐代에들러니 譯하면太白[illegible]이라傳하며 俗甚敬畏之、人不得上山溲汙、行逕山者、以物盛去、上有熊羆豹狼、皆不害人、人亦不敢殺」이라고하엿다。(後魏書及北史、引文은北史)。唐의 括地志靺鞨國條에「北國有白山、鳥獸草木皆白」이라하야 新唐書에는太白山이란일홈이처음나고、 契丹國志에 太寶長白山이라하야「乃白衣觀音所居、其山內禽獸皆白、人不敢入、恐穢其間、以致蛇虺之害」라하고金史에와지長白으로 仍用되니「從人」은「徙太」는여게「더거리、하다」[illegible]暑하다」(一日增若大山日大淸日神)[illegible]云云은三神山物類皆白이라는觀念과 擧國의古信仰이結合한上에佛教的潤化가加味된것이다。「徒太」의語源을[illegible]에拘하야 說明하는者ㅣ잇스나 이는武斷이니 北方에서大白이니長白이니함에對하야 南方인不咸側에서는 古傳說以外에는 後에白頭란일홈으로專稱

하게되니 高麗史光宗十年에「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居之」라함으로 그始見을삼는다 統一新羅以來로 白頭山의域外로나감과한가지 그古名인太伯(붉은)이 차차名實을일케되며 太白山이라하면 名號로는 嶠高江原의分界를생각하고 事實로는東海의妙香山을聯想하기에이르럿다。

白山은東方의古民에게天의代身이오天主의神京이라하게된바ㅣ니 그崇敬의程度가特高特篤에絕然한이偶然한것이아니엇다。 그러나部族이繁衍하고 國土가擴張함을딸하서 그네의熱烈한信仰은 각기저의區宇內의一白山을要求하게되니 朝鮮의分黎山、滿州의涉眞山、[illegible]의貞兒山、[illegible]의信宗、倭의毘吉山、鮮卑의赤山、契丹의不見空山、[illegible]의木葉山等은 그部族別의數例에屬하는것이오 또朝鮮半島안에서成鏡道의長白山、平安道의妙香山、江原道의金剛山、黃海道의九月山、京畿道의北漢山、忠淸道의俗離山、慶尙道의太白山、全羅道의智異山等처럼 무릇一方의代表的高山된者에는 그古名別名主峯名에라도 반드시[illegible]、風流等白山類語의名號를帶하엿슴은 그地方別의數例에屬하는것이다。 [illegible]

黃浦海岸에서

金岸曙

어머님이 그립길래로
故鄕이라 돌아오건햇스나
安息할수업는이心思를
어이하랴 새노는물결의
흠너흠인바위를따리고
다시일어나가는물결은
무엇이라 精神을일어버리고
남뛰는안타깁은맘이물가
쫏겨온듯작코모래우에
물결은키쓰를거듭해주나
몸을빗쉬고어이업게
사랑에도설은노래아닌가

女子

無心한물바람이
아낙네의머리털을
휘날고지내찻서라
아낙네는호자웃으며
「언젠가한番그이가
검다란이머리를
쓸어준樣態도잇거니」

갈매기

가업는한바다에서
父母업시고定向업시
떠도는몸이갈내로
갈매기는우노랍니다
하는소中音히떠들며
설은身勢노래불으면
넘는해는엽흘노흐하고
맘든하들은검해집니다

化하엿스니 史上에잇는「不咸」란것과 시방民俗에行하는「마고」이란것이 다그一例인것이다。 그러나가장鮮明하게人格的成體를가초게되기는 金代以後에屬하니 金世宗大定十二年(西紀一一七二)에는「長白山在興王之地、禮合尊崇」이라하야 興國靈應王을封하야 山北에廟宇를세우고 儀物을가초앗스며 同章宗明昌四年(西紀一一九三)에는冊하야開天宏聖帝를삼으니 前朝에는그靈應王을主體로보앗다가 今番에는世界를아울러서고처崇仰함이된것이며 그後滿洲에入하야서도發祥의靈跡이라하야 禮數가豫隆하고 望祀康熙十七年(西紀一六七八)에는封하야長白山之神이라하야 春秋致祭를嚴行하엿다。朝鮮편에서는國土의大根이오人文의發源이오宗教의對象이매 自來로絕大한信仰을이에두엇슴은 毋論이것업는일이니 朝鮮의古民은南北으로兩分하고 北部가莫不崇韓과連結하야 白頭山意識이걷밋하면歷史의正系밧그로버서나려하는時節에 다른傳說과 事實이거의다記憶에서살아지면서도 그民俗的方面 信仰上觀念만은 依然히強勁한保守性을지녀서 高麗時代의 民間信仰에「護國白頭嶽太白仙人」으로最高의崇拜를바닷스며 李朝에들어와서 다른方面의意氣는그지업시消沈한中에도 最少限度에서白頭山外지나마祖國의恢復을遂行하야한다는것이 國土觀의絕對한信念이되어서 六鎭일세四郡일세 相當히努力도하고 功績도거두엇슴은 도로혀驚嘆에値하는것이잇섯스며 뒤즉바즉하는光武七年에 大韓國의五嶽을定할새 白頭山으로北岳을삼앗슴가트믄 無足한白頭山을그대로버려두어서 엇더케悄悚스러운생각에부내것는지를說明하는證迹으로도볼것이다。 그러하고最近數十年間에잇는 白頭山認識의勃然한興起는 이제壽言을허비할것까지도업는일이다。

要하건대白頭山은 天의別宮이오 神의寶座요 東方一切의種山이오 國土의 비롯이며 그靈人格的으로보면「天王」의樞家며「開天」의恩主며「護國」의大仙이며 有爲轉化의總攬者이시라함이 시방까지의그에게對한意識이니 이中에一二만하야도그에게의讚仰이 至極하려든하물며이것을綜合하엿슴에아니랴。이밧게도許多한奧件을가졋슴에랴。 더욱압호로는感情的에서理智的으로 物的에서心的으로엿밧그內容을醇化淨化해갈制約下에잇슴에랴。어허白頭山 이는久遠朝鮮그것이다!

飛龍瀑과湯水長

白頭山은일즉자랑할만한우리人文地理學者李重煥을말미아마喝破된것과처 嶺哥山의一枝가東으로東으로버더나오다가 咸鏡의大野에서업드러져운을모아가지고 鴨江의盡頭에서 黃海하게고개를처드려서 東方의山祖가된것이니 朝鮮과滿洲의山岳으로이의分屬아닌것은한아도업는中 특히北朝鮮과滿洲의 地帶에解結하는者를 地上長白山系라하고 長白山의東中吉林의東南으로하야 明川의七寶山外지를貫通한一條의火山脈을白頭火山脈이라하니 白頭山은 실로長白山系의主軸이오 白頭火山脈의大宗이며火山脈中의最大噴火口이라 白頭山의噴火는前後數次에되하고 最近에는 二百年쯤前에도分明히暴發한것이잇스니 시방의天池는 이여러번의噴火로써약간의活動을한일이잇스니 시방立된것이다 頂上은「白頭岩」이란일홈을엇게된 特色잇는「발갈리」粗面岩으로成하야 約一千米突의削壁으로 떼어들어가스니 壁上의外輪은 무릇百許里周圍에 北의白岩上角 東의將軍峯을머리로하야 큰것五六과작은것十數로環立되고 壁下岸列을지으면서壑中으로斗入하는火口는 將軍峯一支가奇巖의것을중방으로하야偃月形의一鑑湖를일우엇다

將軍峯은一에 兵使峯이라하니본대古語로天을意味하는『당굴』이 訛轉하야將軍이되고 將軍이再轉하야 大將又兵使를일우운것인데 近來의地圖에大正이라고쓴것이잇슴은符相似關係로將字를誤認하고故改한것이다。峯頂은東經百二十八度四分三十七秒、北緯四十一度五十九分二十八秒에當하고 標高는二千七百四十四米突(九千五十五尺)을算하니 白頭山脈乃至長白山系에서뿐아니라 朝鮮滿洲를通한全東方의最高地點이다。그우에올라서면갓갑게는密林에사히고멀리는雲霧에잠긴南北萬里白民故國이一眸의下에알렷스니 光景의雄大함 感想의神秘함이과연骸骨山이라도 熱血人을만들고 無神論者로하야금 神의讚歌를목청엇부르게한다。將軍峯은三萬里大陸의 整理者며 五千年歷史의監視者이다。

將軍峯과望天吼의사이로하야輕石으로鋪張한一條의路道가通하니 이리로조차降路約三十分

農謠 진달

東京 牛耳洞人

너른날김맬때에
흐르는땀은
가을날거둘때에
쌀이된다네
그러면우리들은
수지도말고
더운땀을흘리며
김을매려네
호미질할때마다
땅은흙넘너서
던지는호미밥에
싸이끈하네

(昇路二三時)의길을다나려가서 輕沙로二三里를나가면 작은柿物이衞生한속으로 天池의가에물다다르니與琉璃를판듯한面에五色光線이照耀하야얼는聖池의뜻김을자아범이잇다。 넷날에는八十里周圍라하엿스나 이는상島輪廓의長을널음일것이오 最近의實測을 據하건대 湖水의周圍는 約二十五里(一萬一千二百米突)라한다 水深은아직모르며 從往에한번落國人이實測하려하다가 風浪으로因하야完果하지못하고 이번에도합석으로小艇을짓고 예로버틔울만드려서 山頂外지가지고갓섯스나 烈風頑浪으로하야湖邊外지도나려가지못하고 배만내뚱댕이처버렷다 『어머로알고 測量을한다누 나려가만보아라 큰逢變을하리라』하는 馬夫들의預言이러니 인제는『그러키에누가무어라하드냐』하게되엇다 古來로傳하는말에물이바다로通하야 潮汐이잇다하야天池를一에「海眼」이라고부르기도한다 마찬가지눈이라하자하면 海眼은새로에 神眼 天眼이라고할것이엇다 峯頭에서나려다보매조고만한물이 멋군데로서湖水를向하야들어가는것이잇섯다 넷날傳하는말에는 天池가三方으로流出하야 東은豆滿 西는鴨綠 北은松化江의根源이되다하얏스나 영속으로심여흠은 나하는東西兩方은 論外로두고 분명히보이는것은 오즉北方의白岩上角밋호로흘러나가는 松化江源泉이엇다 이것을天上水다하야 落口에서는二十間쯤의瀑으로서 斷崖두릅으로나가는머로 幅이차차줄다가 一里許쯤에서 高七百尺廣三間쯤의飛瀑이되어떨어지고 [illegible]奔湍이되어나가다가 鷹跡峰외지의川床으로 吸收되어버린다는것이엇다 瀑布는近來에飛龍瀑이라고 일흠지은이가잇스니 形容과音과義로 다合當한을듯는다 落口東側의崖角에 自然한 一屋이건너다보이는것은文所人의建設한長白山神廟로 瞻通에는 龍王廟라하는것이라하며 朝鮮人中에는湖邊에假廬을치고 一年혹二年식祈禱致誠하는이가잇다한다

高句麗를아보고 渤海를아보고 新羅를아보고 東夫餘를아보고서 이天上水와大池가 어더케壯嚴崇飾、禪拜수업는듯거움이 天池맛바닥을驚仰되엇슬가를생각하면 말할뜰코도 남음이잇다 그러나千年이고二千年이고의긴잠이어느날에돈지번쩍헤어서 『잘못하얏다』는懺悔와한가지 『이래서는안되겟다』는奮發이나서 事上에서는白頭山을그립지아니한崇拜함이 將軍峯頭에巍然히惣起하고 理上으로는精神的白頭山과 觀念的天宮이 各人의心中에다한아식築成되고야말것을생각하면 나만맛는커다란톤돈이 가슴에서 듯하야지기도한다

近古에와서는白頭山이무론一熄火山이지마는 그活動의餘勢를보이는硫礦泉은 시방도白頭山周圍의여러곳에서湧出하야神賜의靈液으로附近住民에게感謝를바도며흑히山頂에서廿里되는南西麓에잇는『湯水長』이란그것은 每年夏間登山節이면 觀聖과療病과採蔘과獵茸을兼하야오는浴客으로한참雜踏을일운다한다。

無數한神의怒拳

擺氏零下六度라하니外 무던도하지마는 感覺上의치위는그보담도몃倍나더하야 솜옷을겹겹이닙은사람도 입살이파라치아니한이가업스며 게다가바람은몸을부지하지못하게불고 안개는쾌히거칠가망이업스며 三十分이못되어서 큰일나기前에나려가자는말이有力하야지고 馬背에실려올은小孩들은이미말도못하게됨으로 모처럼의길이니더좀遲留하자는主張이 조곰도서지아니한다。 실고올라간長所으로 화투人봉을山가치질르고 어는몸을연방녹여가면서黑曜石의印材될만한것을爲始하야 몃가지岩石의採集을行하는동안에도 多數人의어서나려가자는怦促이星火와가튼데 사흘차호듯키峯頭의紀念寫眞을간신히박고 혼자잇질길업습으로남을딸하서 발길을돌렷다。 속나 마음대로될는지모르매 떠으로『또오게슴니다』하기는하서운한생각이잇다。 寫眞及活動寫眞班만數人이떠러지고 九時二十分에下山을시작하야 바람에불리는드키三十分이됨말랑하야서 定界碑잇는데로回還하얏다。

무엇인지큰짐을버서노흔것처럼 억개가가볍고 다만一分이라고 어제밤에祝願하든생각을하면 이만큼瞻禮觀感한것이듬시 過猶不及도하야 마음이애洽足하며 天日이快晴하야遍路로久祭치못한것을遺憾으로할는지모르되靜止한것 平板的인것으로가아니라 活動神變하는天地의靈觀을어든것이 도로혀特別한偶然이라고아니할수도업섯다 行廚를 글러서 열인얼음석긴밥에연입맛을다시고 蘇兒熱路라고질날것이업스매 三三五五히自由行動으로 無頭峯露營地로의歸程을取하엿다。그러케도야단스럽든日氣가 거짓말가치벗어지고 쨍쨍한볏치한참解土에努力하야 길은데개물이발등을파뭇는沮洳地이엇다。 石壁을지나고 雪崖를건너서 鷹跡峰외지오는동안에 白頭山頂을돌아다본것이 무릇멧번인지 모르며 맛나뵈온어버이를떠나는듯포가이러한것인가하엿다。 붉어케옹욱한火口、파라케잔잔한湖水、숭업거리는안개、몸부림하는바람、그中間에서생기는 造化의大戲劇、가고가도天地一局이依然히눈압헤지펀지펀하다。

나려다보인다。 江北滿東의千山萬岳이 마치大小無數한주목들을쥐어서처든것갓다。 저것들이個個가一火山塊라하면 大地도부스럼을퍽앓은셈이다。 그런데이것이그대로神의一發怒의表象이시라는直覺이난다。神에게對하야敬虔치아니할때에怒하시고祖先에對하야孝順치못할때에怒하시고집안서리의왓시나올때에怒하시고[illegible]정신만엽을때에怒하시고뼈다귀얼어부노릇할때에怒하시고피가얼어부튼듯할때에怒하시고힘을이彈力을니저버린듯한때에怒하시고頭刑이가밋바닥외지빠진듯할때에怒하시고 蘇那曷叱智가瀛海건너간을때에怒하시고眞德王이太平頌지을때에怒하시고 成忠이獄死할때에怒하시고 溫氏門中에壞園大台할때에怒하시고 崔都統이역뒤잡혀을때에怒하시고 李忠武가오나라가너라당할때에怒하시고 柳麐遠이布衣老死할때에怒하시고 金正曉가白頭流丐할때에怒하시어 이런때만콤한번식쥐시고한번식처드신주목이저러케만흠을보매 罪지은者가朝鮮人이오 禍바든者가朝鮮人이란생각이난다

이럭저럭草原帶가끗나고 森林帶에를當到하엿다 外例에선의갈나무들이 西側으로는一拔半柯를부치지못하야 여긔서보기에는마치長杆을列植한것가듬이 새로히感興을쏘은다 白頭山이神邑일진대 古風을依하야蘇塗(솟대)를세워서야할것이오 十方百千部가 각각一株식을來奉하엿다하면 그數가또한작다하지못하리니 시방저無枝直木들이 天山의神域을鎭護하는自然神竿이라한들 누가구태아니라할者이랴 馬鼠커럼 節旄처럼 그東側으로만달린 枝條는鈴鼓와 幣帛을달고들이운것가태서도로혀눈서투르지아니하다

幕營地에다다른것이 後二時半이엇다。해가아직도하고 冪無閑身이되매 별안간世界에를온양만하다。 밤人동안風雨에조련질바든天幕은 內外가다慘憺하야 白日下에서는보기가참아쓸쓸스럽고 採集包와行具와衣服은마치洪水難을치른뒤가틈으로 모든것을다집어내여 日光을쪼이는데 너도나도 여긔서도커괴서도하야 雲時間에無頭峯下一帶에 녁마落店과 갓가운雜貨店이섯도 一壯觀이엿다。감초앗든『휘스키』甁이이집저집에서나와서 小饗宴大歡笑가 處處에浙騰하고 動物採集의放砲聲이잇다감活動世界의생각을귀롭하야주어서 그만만하야도 人間味가刻刻으로넘처흐름을보겟다。 저녁밥을일즉해먹고 처음으로雨天아닌露宿을깃버하면서 어느덧모든것을휘몰아서 꿈나라로데미럿다。

新刊紹介

紹介를願하는冊子는[illegible]로보내주시오

▲海外文學(創刊號)表現主義文學論「又오冊論하야」、最近英詩壇의趨勢、外米、佛、獨、露、國等의小說이六七種、詩歌數十種、戲曲、論伊二種、等滿載 定價金六十錢 京城府洛洞百十二番地 海外文學社

▲極光(一月號)靑年과克己、小年文壇童話와作文詩歌、七八種 定價金十錢 振替京城一五三九〇番 咸南元山府龍洞七十九番地 極光社

◇龍岩浦◇

龍岩浦殖産組合 組合長 金成圭 理事 金世杰

龍岩浦 龍成醫院 醫師 金成柱 電話三六番

龍岩浦 勞働組合

龍岩浦 黃濟河

龍岩浦 永川醫院 醫師 金丙浩 電話三二番

龍岩浦 自轉車商 三陸商會 金基洙

龍川郡龍川面中興洞 黃觀河

龍川郡龍川面昭興洞 金斗燮

龍川郡北中面楸亭洞 張桂鳳

龍川郡府羅面德岩洞 金尙柱

龍川郡府羅面栢峴洞 金熙西

龍川郡府羅面栢峴洞 大正水利組合 副組合長 金秉熙

龍川郡府羅面運餉市 德興商店 黃德潤

龍川郡府羅面中端洞 不二興業株式會社西鮮農場主任 天草福太郎

龍川郡府羅面中端洞 光濟醫院 醫師 高光國

龍川郡府羅面中端洞 林炳祚

龍川郡府羅面德川洞 德川醫院 金德三

龍川郡北中面中城洞 鄭丙昞

龍岩浦 磁器商店 高志鉉

龍岩浦 新興商店 金昌樂 金英傑

龍川郡北中面元松洞 張根維

龍岩浦署廣洞 回春醫院 公醫 金德湜 醫生 曹範朝 電話一〇番

龍川面事務所 面長 金宅奎 書記 洪允晩 書記 張貲明 書記 黃信泓 書記 黃信容 書記 李處遠

龍岩浦 興業社 金熙璧

龍岩浦私立幼稚園 園長 黃觀河 保姆 白敬玉 保姆 洪宗伯

龍岩浦 雜貨商 德山商會 金熙燮 金英鎭

龍川郡龍川面石城洞 金洛龜

龍川郡龍川面 少湖浦漁業組合長 金信坤

龍川郡府羅面運餉市 共信殖産組合

◇靈山◇

龍岩浦 玉九濟

龍岩浦 綢緞布木雜貨 明信號商店 姜明奎

昌寧郡靈山面西里 靈山自動車 靈山自動車會社

昌寧郡桂城面廣溪里 桂城面協議員 朴鳳鶴

昌寧郡桂城面廣溪里 朴鳳遠

昌寧郡靈山面新堤里 靈山面協議員 鄭啓鎬

昌寧郡靈山面校里 辛廷植

昌寧郡昌樂面兎川里 兎川勞働夜學校長 林先生

昌寧郡製房面[illegible]里 製房面協議員 河一秉

昌寧郡都泉面松津里 松津勞働夜學校長 奇瑾梯

昌寧郡吉谷面會山里 吉谷面協議員 李愚一

昌寧郡靈山面城里 靈山衡平社 員一同

昌寧郡城山面冷泉里 尹鎭萬

◇長春◇

滿洲長春富士町三丁目十二 特產物委托貨物貿易旅館業 三山洋行 主 李昌根 電話五五五番

和洋式諸帳簿特種樹人名簿書籍雜誌製本製品에滿足을드리고價格은低廉期日은確實 長春三笠町 電話一三三四番 三省製本所 主任 鄭[illegible]

滿洲長春城裏北門外 共和醫院

滿洲長春入船町 東洋精米所 崔潤玉 電話二三一番

滿洲長春富士町 朝鮮人居留民會 電話五八六番

滿洲長春富士町三丁目 同友社長春支社 金利三 電話五五五番

吉林省城德勝門外德勝街 穀物貿易業 吉成糧棧

吉林省城朝陽門外 精米特產物委托業 三豊公司

吉林省城新開門外 玄米精米 廣成號精米所

吉林省城大東門外 穀物貿易委托賣買貸付業 (大)大東公司 支店吉林省城西關[illegible]

吉林省城[illegible] 精米穀物貿易委托賣買業 福興泰糧棧 主任 李基元

爲鐵山支局設置

鐵山警察署 署長 佐佐木魯輔

鐵山邑內 黃淳贊

鐵山面會山洞 金道敏

栢梁面高寧洞 鄭永鳳

鐵山面富永洞 鄭舜日

鐵山邑內 定期二回 汽車 臨時貸切 鐵山自働車部 鄭鳳日

鐵山郵便所 所長 鈴木篤助

栢梁面[illegible] 鄭永翼

鐵山邑內 光東醫院

鐵山邑內 大昌商店 鄭大赫

鐵山邑內 朴吉龍

鐵山 郡守 曹禧連

鐵山邑內 史秉哲

鐵山面[illegible]洞 崔鳳楨

[illegible]面[illegible]洞 鄭龍日

鐵山邑內 長興合釀酒商會

鐵山面[illegible]山洞 永興商會 金[illegible]

鐵山邑內 廣濟醫院 安好[illegible]

鐵山邑內 相逢館 主 秉太

鐵山面[illegible]洞 韓利叔

鐵山邑內 [illegible]釀酒商會

鐵山邑內 鄭潤玉

鐵山邑內 方[illegible]

鐵山邑內 [illegible]商店

鐵山邑內 [illegible]

鐵山邑內 鐵山商店 宋[illegible]

鐵山邑內 沈致璣

◇濟州◇

本籍濟州城內一徒里 現住大阪東成區東小橋町五三 精米業 金斗勳

本籍濟州城內二徒里 現住大阪東成區南玉造町二七ノ四 朝鮮料理 康成鳳

本籍濟州城內二徒里 現住大阪東成區中道町一ノ三九ノ七 商業 高五奎

本籍濟州邑三徒里 現住大阪西成區[illegible]町一九 下宿業 金元亨

本籍濟州城內二徒里 現住大阪東成區[illegible]町六五五 朴雨相

本籍濟州[illegible] 現住大阪[illegible] 金[illegible]

定州郡廳職員一同

◇사진은배재사은식광경

駐滿參議府
◇被禍前後顚末(一)

지난일월삼일오후한시경에 중국환인현양게와부(中國桓仁縣…)에근거를두고 조선민족운동을하든 주만참의부뎨이중대당김룡핵(駐滿參議府第二中隊長金龍赫)(모)이하각소대당과 경리등이 중국관헌에게데포되야 방금즙안현구현지사(輯安縣知事)의소에서 엄혹한취조를밧는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제그데포던 말을못건대 아래와갓다

◇

작년십이월삼십일 중대당김룡핵은상등병박시상(上等兵朴始祥)과참사최옥산(參士崔玉山)이를명하야 즙안현외차구흥련거우(輯安縣外岔溝大거우)에잇는 부호박린상(朴麟祥)의집에가서 군자금이천원을바더오라고하여 긘긔두병뎡들은 분부대당외명령에의하야 바린상의집에가서 군자금으로중국돈이천원(일본돈으로 일천오백원가량)을내라고하엿스나 바린상은 그와가튼다수한금액을일시에내일수가 업슴은 만아니라 가산을전부 판다하더라도 도뎌구할수가업스니 차라리내목숨을 떠어주는것이도로혀 고맙겟다고하매 긘긔병뎡은 상부의명령이라부득이 바린상을압송하여 고이십오일저녁에 사무실에이르러 중대당에게 보고하엿다

◇

그리하야 중대당김룡핵은바린상을만나며 승락하기를요구하엿스나 도모지요구에 유치안흠으로 부득이금천대신에다른것을 요구하엿다즉외분구(外岔溝)구내에잇는 동포로하여금조선버디로 들어가지 안토록하여달나는 부탁을하매바린상은 그것도할수가업다하매 김룡핵은 다시『네가잇는근처사람이라도 나가지안토록하여달나는부탁을 하매바린상은여긔에는 불응치아니할수가업서서 구내에잇는사람에게각각아니들어가겟다는 서약서를밧치겟다고약속하고나오게 되엿다

◇

이때에 박린상의당남 박창귀(朴昌貴)가중대사무실에 와서 자긔아버지와한것을 리행하마 하고바린상은 자긔아들을두고 집으로나오게되엿섯는데 이때에박창귀는 자긔아버지를구하기위하야 술파도아지한마리를 삼아가지고 중대에밧첫스나중대에서는 개이도아니하고노황디(老荒地)보안대당김병길(保安隊長金炳吉)을식혀바린상의 뒤를따르게하엿섯는데 바린상은칭얼죄하루人날집에 돌아가서가족에게 그런사실을말하고 근방사람에게서나장을 밧기로 하다가 시작은아들을식혀즙안현외봉구(外岔溝) 보갑대습장소(川派所)에가서 방금우리집에독립단이와서잇스니 가서잡 이라고말을하엿다

旅館同業안한다고 寃恨품고放火
려관뒤집에불을질으고가 開城大和町金應煥의犯行

개성대화뎡량성시당사십팔호(開城大和町兩城四八號) 김응환(金應煥)(모)은 대화뎡이십칠번디송경려관(松京旅館)에가서 수년동안일을보아주고잇든바려관주인 김경환이가 송경려관영업을동업으로하기를청하엿스나 불응함으로 김유환은 자긔의 요구에불응하여 항상불만으로 생각하여오다가 지난십팔일밤일곱시반에는원수로생각하는송경려관에불을노아손해를입히려하나송경려관은 문권이번화하야방화하기가곤난하기로 뒤로이웃이 되여잇고송경려관집과 연접이되여잇는 대화뎡이십구번디박경진(朴景鎭)의집데문간집웅에충화하야불이 오는쇠풍파가치 맹렬히 붓어기시작하는것을 곳발견하고동팔시반에 진화하여 방화범자의목적되는 송경려관까지도 연소되지안이하고 무사하엿다는데 방화범되는김유환은곳개성경찰서의손에데포되여엄중취조중이라더라(개성)

培材五先生 謝恩紀念式

귀보＝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普)졸업생들의 주최인오선생사은긔념식(五先生謝恩紀念式)은 예뎡과가치재작십구일오후일곱시부터 시내뎡동(貞洞)뎨일례배당안에서열리엿는데 동교보생도는물론이오 래회(來會)한귀빈도 수백명에지모히여 뎡각전에만원이되엿섯다 일곱시삼십분가량이되여 리수회(李壽來)씨의사회가 동단하자 문허질듯한환영박수소리가이러낫스며 착석한후에배재악대의 쥬악한주악이잇섯고 사회자로부터 식사를맛친후에 오씨의략력을간단히 소개하고 긔념품을 각각증뎡하엿다

—◇—

계속하여 래빈의 축사와 합창대의 합창이잇슨후 각방면제씨의축사가잇섯스며주악소리속에 동열시반경에 무사히 폐회되엿다 긔사의식에 출석한 오씨의략력을 소개하면

—◇—

◇李重泰氏 한국시대에 흥화(興華)학교를졸업하고 그후에 순전히 자습으로 디리력사(地理歷史)를연구하여 일천구백십년부터 배재교에서교편을 잡어오다가 재작년에동교를사임하엿다한다

◇康濟氏 일즉이일본대학 명문과(日大英文科)를 졸업하고 조선문학을연구하여 일천구백십삼년부터 동교에드러가서 방금근무중이며

◇金成鎬氏 칭년학관(靑年學館)을졸업하고 대수를연구하야 동교에서교과서를만들어 방금중동교에서는 씨의저술인교과서를만히쓰는중이라는데 일천구백사년부터 동교에근무중이며

◇金東赫氏 씨는자습으로 박물과식물에대한연구를 거듭하여왓다하며 교과서까지편찬한일이잇섯는데 일천구백십칠년에동교에드러가서 작년에사임하엿다한다

◇金仁湜氏 평양 숭실대학(平壤崇大)을졸업하고 일천구백사년부터 동교에근무하게되여 창가를 취임으로교수하는중이라한다

東津水組工事場의 五百工夫盟罷
청부업자의집세지습격해 原因은賃金을주지안아

동진수리조합의(東津水利組合)(三)공사를청부한중촌조의삼학(三)식이년시이월삼십일부터 공사를착수하야 지난십일까지 이르도록 공부의임금을 아니줌으로 지난십팔일에오백여명의공부가 삼학의집을에워사고임금을내라고임시는 험악한 지경이엿든바 게삼공구청부한중촌조(中村組)에서 그임금을 지불하기로하야 무사하엿다는데공사는여전히맹파(盟罷)를하고잇다더라(대인)

紛糾中分敎

전주서문외례배당(西門外禮拜堂)은엣해전부터장로(長老)리돈수(李敦洙)씨와교인목사사이에 적지안흔분규로지내오던중리장로는례배날도차가에서순례하면서일방으로전북로회에(全北老會)분교청원(分敎請願)을하여열렬히운동하엿든바 작년춘추량긔(春秋兩期)에는로회에서고려할필요가잇다하야유아하엿든중금번전 완산정(完山町)에례배당을두고 정식례배를하게되엿다더라(전주)

崇實昇格運動
학생대회열어

평양부신양리(新陽里)사립숭실중학교(私立崇實中學校)는일즉당국의지뎡을 엇기위하야 재학생은물론 학교당국에서도 그승격운동으로 유자격교사를 초빙하는한편으로 내용을 충실히하야이래운동을계속하여 오든중금년에이르러서는더욱해재학생과 학교당국이 일치하야 실현을촉진코저금일동에는숭실대학부중학부외련합으로 동교 강당에서학생대회를열고 그운동 방법을토의하리라는데만일의경우에는동교생도로부터대표자를선거하야 총독에게즉접진정이라도할작뎡이라더라(평양)

路上婦女襲擊
길가는부녀의돈을빼서가 平壤府外의棍棒强盜

평양부내신창리(新倉里)김성녀(金姓女)(오)는지난십사일오후 여섯시반경에시외사동(寺洞)방면에나갓다도라가는길에시외동대원리(東大院)부근길가에서삼십세가량의 몽둥이가진 강도한명이나타나서 김성녀의 가지고잇든 현금십팔원을 강탈하여가지고어데로 다라나 버리엿다는데그가는신고를밧은평양서에서는각방면으로수사망을느리고수색중이나범인의종적은묘연하다더라(평양)

金堤强盜
부녀를결박

김데(金堤)지방에강도가빈빈하다함은 사건발생당시마다 보도한바어니와 지난사일 새벽한시경에김데군상감면진흥리 (金堤郡上甘面鎭興里) 리성녀(李姓女)가 열두살된어린아들을다리고자는곳에 식도를 가진강도세명이들어가 줄로두사람의 주인을 묵거노코 현금삼십오원을강탈도주하여버렷다는데그당시에 전긔리씨의남편되는김광렬(金光烈)은경상남도방면에려행을가고집에업슴으로 경찰에그사실을알리지도못하고 이제까지잇다가지난십팔일에 돌아와남편에게그사실을말하야경찰에그사실을곳고발한것이라더라(김데)

酒色에싸저强盜질 鐵槌로店主打殺
불원에공판될안주강도 끔찍한少年殺人强盜

십구세(범죄당시)의소년으로강도살인(强盜殺人)이라는죄직한죄명을쓰고 평양디방법원 안주지텽에서 삽년의 세월을 시도(矢島)예심판사의손에걸리여취조를밧든 안주군안주면 칠성리(安州郡安州面七星里)칠십칠번디 윤승록(尹承祿)의 둘재아들윤효선(尹孝善)(三)의 강도살인사건은 지난십이월 이십사일에 예심종결이되여동지텽예심판사의손으로부터평양디방법원하촌(下村)검사로부터 긔소를칭구하야 공판에붓치여십팔일오전열시부터 개뎡 되엿다는데 그내용은 관이개뎡 되엿다는데 그내용은 그는 사건은 지난십이월 이십사일에 건인리(安州郡安州面建仁里)삼

不正衡器로詐欺한 全北豪商에鐵槌
사용하다발각되야잡히여 科學應用의衡器變造

군산부(群山府)록석뎡미회사(陸石精米會社)와신태인(新泰仁)에잇는일본인고뢰군길(高瀨群吉)과군산신상근(申相根)등세명은전라북도의큰부상(富商)으로부정형긔를사용하야빈민을속여먹다가 얼마전에 전라북도방면으로 출당한 총독부관리가 발견하고즉시소관경찰에고발하야 그들모다 소할검사국에서취조를밧는중이라는데 전긔록석뎡미회사는대평(臺秤)의비뭇(鼻…)을거구로달아 속이고 신상근은 증추(增錘)는협잡을하고고뢰군길은대평긔게에아연관(亞鉛版)을쓰려너코또는거금(擇金)한개를벗겨내서 임의로 협잡하엿다더라

强盜七名、竊盜八名 打盡된大賊團
종로서에잡힌희유의대뎍단 강도와절도를분리하야취됴

귀보＝종로서에검거된열다섯이래명 대강도 절도단 (大强盜竊盜團)에대하야 동서사법계에서는 절도와 강도를 분리식혀가지고 강도범행건수부터 먼저 취조를 급급히하야 절도범들은 뒤로두고강도범들부터먼저이삼일안으로검사국으로넘기리라는데동단원중 강도범인은 모다일뎡한주소가업는

朴德龍 金明玉 金潤基
朴鎭永 金永善 安治先
李石萬

등일곱명으로 그자들은 작년이래

市內新橋洞四四鄭召史▲高陽郡龍江面東森下里沈命錄▲廣州郡彦州面新砂里具聖恩▲始興郡東面始興里李三龍▲高陽郡漢芝面杏堂里河內平松

다섯집에침입하야 식칼흉은몽둥이를가지고주인을협박구타한후 다수한금품을 강탈한사실이잇다는데 전긔다섯곳에침입한중 네곳은 강도상인(强盜傷人)한곳은 강도미수로 또한그자들은절도범행도여러건이잇다더라

覆審에서또無罪
검사는여사무긔를구형하여 新義州前妻子息殺害夫婦判決

신의주부진사뎡(新義州府眞砂町)사뎡목두부당사박영찬(朴永贊)(四)과그의후처박영조(朴永祚)(三七)가팔년전에죽은 전처의소생아들근성(一○)을항상미워하여오다가 대정십일년 십일월이십륙일밤에 부부가 한가지로아들근성을다리고압록강(鴨綠江)으로가서 어름을씨고 그아들을잡아너허죽엿다는 혐의로 작년팔월에 신의주디방법원 지텽에서박영찬부부에대하여살인죄로 긔소되여검사국으로부터무긔징역의구형이잇섯스나증거불충분으로무죄의판결이잇섯든바검사로부터 평양복심법원에 공소를뎨긔하엿다함은 긔보 하엿거니와지난십팔일 동법원에서 공소공판이개뎡되여 대소(大沼) 검사로부터 역시일심과갓치 무긔징역의구형이 잇섯는데 지난십팔일에 일심과갓치 증거가불충분하다는리유로 무죄판결을 언도하엿다더라(평양)

仁川에殭屍續出
섣달일밤에두명이얼어죽어

지난십팔일밤 치위에는 인천시내두곳에서 강시가나서 인천서에서는검시를한후다시행려사망자(行旅死亡者)임으로인천부청(府廳)에인도하야매장케하엿다더라

▲인천시외당의리(長意里)삼백륙십륙번디 밧꼴에 주소성명알수업는 조선로파한명이 쓰려진것을근처중국인농부가발견하고 소관파출소에 통지하야 현장에 림검한바 그는걸인으로 먹지못하고 그날밤 치위에 그가치죽은것이라하며

▲경인선상인천역(上仁川驛)압 매축디에 방금건축하는가가(假家)집속에역시주소성명 알수업는추청년역사 사십세가량된조선인남자한명이죽은것을 신정구일아츰에그곳에일하러온목수(木手)가 발견하고 소관파출소에 통지하야검시한바 그의의복긔타로 보아거지로할곳업는걸인으로그날치위에그가치얼어죽은것으로관찰한다더라

堤防고치다溺死
◇비온뒷헤한강근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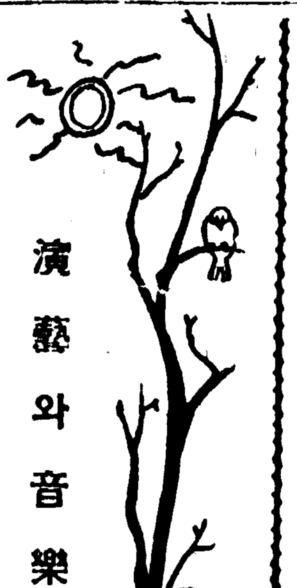
고양군송포면대화리(高陽郡松浦面大化里) 김형원(金炯元)(三○)은지난번비로인하야문허진 대화리뎨방(堤防)을수축하려고 인부몃사람과가치 일을하든중 지난십칠일 오전열한시반쯤되여 가지고일을하든때이자루가빠지자 밋그러저서 드길이나되는 그밋헤강물(한강상류)로그만떠러저서 죽어버렷는데 그현장에서 갓치일하든이부분도 원체언헤서죽는것을보면서도 덕이둡흔데다가강물이 깁고또치위가심하야어찌할수업섯다더라

釜山에老殭屍

부산곡뎡(釜山谷町)이뎡목그십칠번디 부근의 토굴(土屋)속에서 지난십칠일오전열한시경에팔십여세나되여보이는 로인의동사테(凍死體)를 곡뎡촌당이발견하엿다는데 그는본적이경남울산(慶南蔚山)출생인송만선(宋萬善)(六二)으로 의지할곳이업서 이집저집으로 다니면서 밥을빌어먹고 밤이면 토굴속에서 짚단속에 몸을파뭇고지내다가 근일가튼 모진추위에 동사하엿다더라(부산)

◆天氣豫報◆ 曇雪猊樣
昨日正午 昨日最低 昨年昨日正午

演藝와音樂



헐리우드 (4)
림시고일급보통팔불 대수술로얼굴을변형
米國映畵王國探訪記

그러케도 만히모혀드든엑스트라들의 이야기를들으면 천자에일본에잇슬때에는 동경데국극장에 가극부에서상당한 일홍이잇든 남부방언(南部邦彦)은지금허리우드에서 상산초인(上山草人)과가치 동양사람이필요한때에쓰이고잇다는데 그는심각미와 매력을 엇이기위하야 얼굴에대수술을하야서외양을꾸치엇다고하니 그들의경쟁은 과연엄마나맹렬한줄을짐작할수잇슬것이다 그러나수용자직영화제작자측에서는 그반대로『엑스트라』가 소용이되면당장에라도 세계업는인종이고구해줄수가 잇다고한다지에는『로스안젤스』씨외에『캬스팅써비스뷰로』라고하는것이잇서가지고『엑스트라』의일급의 백분지일식을 수수료로바더 머어가면서 량편중간에서서 소개를하여주든것이데 지금은중앙배역소(中央配役所)라는것이 생기여가지고 촬영소편으로부터수수료를밧고 천거해준다고한다『엑스트라』들의일급액은 동양사람의(엑스트라)는 본래수효가적은싸닭으로 보통십이원라 조선돈으로약이십사원가량이요 얼굴에 조곰만특징이잇스면 십오달라는밧기쉽다고한다 그러나이에들어서는미국사람들은 도리혀섭섭기짝이업다고한다 엇한사람의일급이팔달라가량이라고한다『프리란쌍』‖ 작속이업시 어듸서던지링하면 딸녀가는‖배우들이며장차일홍을어들만한 배우들『크린아틔스트』‖영화예술가‖라든지『드스탄다드』표준‖이라든가『필림카다록』등의『관프레드』에 원목로연하게분장사진을게재하야 잇는고로 마유머로울라삼게된다한다 그중에도『필림카다록』이라는것은자미잇는것으로 그것을발행하는곳에 여러배우들의기예를 박은필림이 만히보관되여잇는고로 그필림을한번돌녀보면고용할배우들의 기예도잘알수가잇게되엿것이라고한다

米國映畵通信

영화각본가로 미국에서가장일홍이놉흔『마튼괴라』씨는 이번에『또니하인스』를위하야『스테평아둥』쓰고『릴레스피아러』를위하야『루이아드포데인스』를썻다고한다

○

미국극단에서 상상히일홍이잇는『연커』오두의는엄마전에유나이데트』사에입사하야방금트푸세이해드에싸』라는영화에출연활영중이라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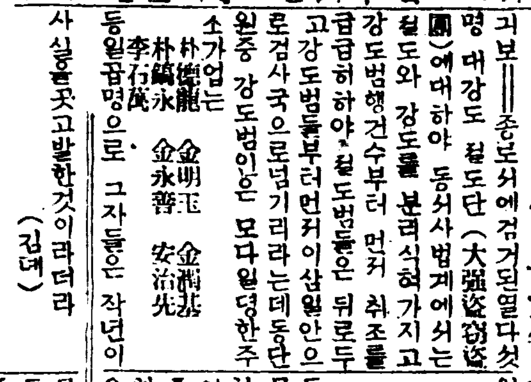
◇朝鮮劇場◇
本報讀者優待日
優待券欄外에
自一月十九日 三日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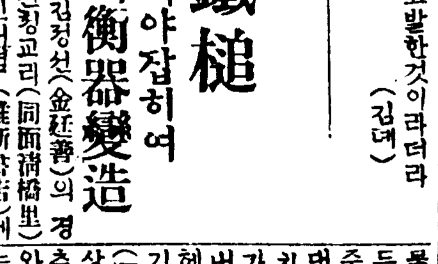
演藝寄稿歡迎
◇投稿種類及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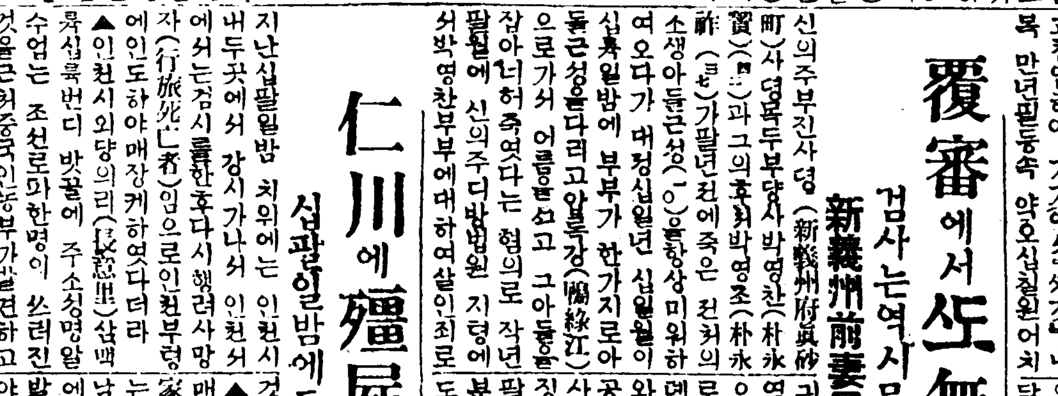
印象 — 국이나영화에관한판틀의인상이니국히간단히 또는요령명요히불편무당히쓰되십사자일행십오행이내로‖字證分明히‖川紙는原稿川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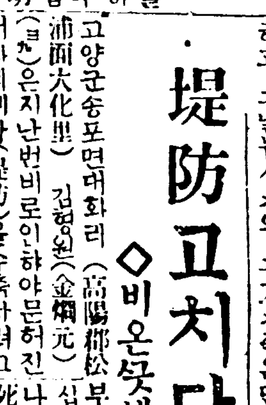
希望 — 조선연예계의관한판들모든희망이니국히간단히요령명요히불편무당히쓰되십사자일행오십행이내로字證分明히‖川紙는原稿川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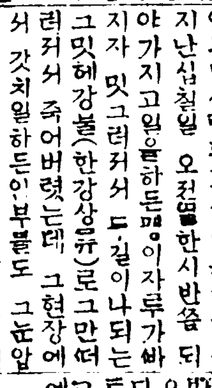
不平 — 국계와영화계에대한불평흔극장에대한불평이니극히간단히 또는요령명요히불편무당히쓰되십사자일행십행이내로字證分明‖川紙는原稿川紙‖











京城勞銀表（十二月分）

職種		本月中	前月中	前年本月中
大工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國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挽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國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指物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塗物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錺職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井戶掘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左官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疊職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靴造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表具師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左官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瓦職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煉瓦職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國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石工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國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鳶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植木職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車夫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지게꾼	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人夫	日本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國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均指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勞銀平均指數表（十五年十二月分）

	本月中	前月中	前年本月中	前月中을百으로하고本月中	前年本月中을百으로한本月中	高	低
平均指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九、四	[illegible]		

備考 一、本表의指數는明治四十三年七月의賃銀을百으로하야算出한것이다
二、平均指數最高記錄大正八年十二月中一九八七六

造船業界의現狀
一個年收入八十萬圓不足
日本의一中流造船所에不及

朝鮮造船界는一時日本斯界物價의刺戟을受하야設備의擴張과內容充實을期하야將來의發展에備한바이엇스나急轉直下로戰後의衝動한影響을受하야依然히極度의窮狀을招하게되엿다元來低廉한勞銀으로써職工을供給하야朝鮮造船界는日本의그것보다幾分有利한點이업지안엇스나設備의不備、材料의供給難及金利關係等으로比較的建造費가低廉치못한事情이잇서恒常日本內地造船界에比하야一籌를輸하는現象이라그結果新造船은小型船과帆船을脫치못하고汽船의新造에至하야는모다日本內地에仰하여야되는狀況에在하며그리고目下朝鮮內造船鐵工業者는個人會社를通하야約五十名을算하고資金總額五十二萬圓、常設職工約五百名에達하나設備에至하야는極히不充分하야大正十四年의新造及修理의總價格을見하건대新造四十五隻十三萬五千餘圓帆船百五隻十萬一千餘圓修理汽船八百四十八隻二十萬二千餘圓帆船一千百九十一隻十九萬餘圓으로그通計七十二萬八千餘圓에不過하고總價格은日本內地一中流造船所에도不及하는貧弱한數字에止하며更히이를同年末現在朝鮮在籍汽船三百二十四隻帆船七千五百四十七隻에就하야比較하면其造船比例는新造汽船一割三分四厘、帆船一分五厘、修理汽船二十五割四分一厘、帆船一割五分七厘로서이는조금도朝鮮內造船業不振의一班을窺知할수잇고最近調査에依한朝鮮內의斯界는造船所二十三箇、資本金五十萬九千四百圓職工數는四百五十八人이더라

金利問題其他
◇井內鮮銀理事談

그동안滯東中이든井內鮮銀理事는二十日에歸京하엿는데經濟記者團에아래와갓치발하엿더라

下半期決算은前期보다良好한成績을得하엿스며아즉도整理時代를버서나지못하엿슴으로株主配當은五分据置로하엿고朝鮮과滿洲와의利益率은最近거의同率이

入超激增
二千九十萬圓
日本中旬貿易

日本中旬貿易은移出五千四百十四萬三千圓移入七千五百六十萬五千圓으로入超는二千九十二萬二千圓인바前旬入超(四百五十四萬二千圓)에比하야一千六百三十七萬九千圓의激增이라더라(東京電)

經濟組織과 女性의墮落

生活難의經濟組織과 賣淫制度의存續은 必然的關係이다 英國經濟學者의報告한意見에依하면 賣淫制度가存在한것이안이오 貸金制度가存在함으로 吾人은賣淫한다할것이다 經濟現象의因果를가장잘描寫한記錄이다 그럼으로歐洲의婦女最低貸金法의制定은賣淫防止에는큰効果를엇지못한것이다 그理由는第一에法의制定者의多數가資本家의代言者이요 그適用에當하는者가現制度의擁護者이다 또家族制度下에서는一人의貸金으로써는全家族의生活을支持할수업다 그럼으로生活難이家族多數에依함이라고 委員會에서는全家族의生活費를保障할수잇는範圍의貸金의支給을企業家의게强要할수업슬것이다 그럼으로生活難을除去하엿다는斷案下에 論議할바못된다 賣笑婦의發生되는原因이決코經濟組織에만限한問題가안이오 오즉婦女의道德性에關한問題라고主張하는者도多數이다 大槪如斯한論을主張하는者는宗敎家에만타 其中一例를擧하면『카렌』牧師는道德은金錢問題와는別個이다 萬若婦女自身의墮落의意가全然업는데

約六千名의婦女勞働者를使用하는某商店에서 또는一週三弗이든가三十弗이든가 或은三百弗됨에何等關係가업다 그의收入되는바給料에依하야 그런것이다 그럼으로보면『自己는彼等의生活費에對應할給料를支給한다 그러나아즉까지도自己의使用하는女性의不道德한者가업다』는暗示가지도할수업게되는것을遺憾으로想像하엿다」는意見을發表하야女性의墮落原因을彼等의德性에求하려하엿다 그런데또女性의墮落을唯心的二元的原因에求하려하는者의所論에드르면 生活壓迫에견데지못하야 彼等女性이그最初인터時에最後의避難處요 또同避難人의賣淫의征域에다그몸을바트리는것은否認할수업는事實이다 그러나經濟觀念以外에는女性의純潔維持가絶對不可能하다信함도반드시過誤가無한觀察이못된다 卽經濟問題도女性墮落의原因이되는同時에 또한德性喪失이原因이되며 또男性의道德도原因이될것이라고 主張한다(續)

銀價反落？
印度幣制改革案
議會通過로

某處에達한安東縣發電을見하면印度의幣制改革案이通過하엿슴으로銀價는反落의步調를取하는傾向이라더라

商業手形優遇
政府에서決定

政府는商業手形優遇案은立法手續에依치안코實行할수잇슴으로其具體案을近近開催하는金融制度第二回調査會에附議決定하기로하엿더라(東京電)

昨年中의 세멘트需要量
九十萬一千樽

昨年中의朝鮮內『세멘트』의需要數量은九十萬一千樽에達하고이를前年一個年間의그것에比較하면二十餘萬樽의激增을示한바그消費比例는小野田六割三分五厘、淺野二割一分十九萬樽日本、六分、豐國各一割四分七萬樽等이그主되는것이요其他櫻、宇部가잇스나그消化量은不足하며大正十五年中月別需要高를見하면大體로

月	千樽
一月	一八
二月	二五
三月	六九
四月	八二
五月	九四
六月	九五
七月	九六
八月	九七
九月	九八
十月	一〇〇
十一月	七二
十二月	五五
合計	九〇一

預金利下 實現？
急轉直下期待

越年後金融緩漫趨勢는去益顯著하고最近年利換算五分九厘二毛라는定期預金利子보담도低率로서紡績手形의割引으로한銀行도잇고例年보담遙히少額일것을豫想케하며今月末도舊節季資金과의需要를外로히면目下特記할需要도업고二月二日以後의金融市場은現在보담一層緩漫狀態를呈하게될것이오錄하야昨秋米의懸案이든市中銀行의預金利下도大阪과其步調를갓치하야或은急轉直下實現하리라고觀測되더라

牛移出高 總督府警務局

調査에依한昨年十二月中의移出牛頭數는五千二百八十二頭一月以降의移出累計四萬六千七百五十頭에達하는바移出港別로示하면

鎭南浦	一、六五八頭
城津	一、七七六
元山	三、〇八六
計	四七、七五〇

期米 前場强硬 （二十日 仁川）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二八·六五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前日前止		[illegible]	[illegible]

昨後場三十一圓十錢에急騰하야止하엿는데今朝大阪初付는五丁高付하야三十五圓四十七錢을報하엿스나當地는昨止際過高한反動인지겨우一丁高로三十一圓十一錢에初付한後에大阪二三節小抛와共히利喰賣로〇六錢에急落하엿스나人氣押目買로變한듯하야低押하는곳만잇스면各店에서買物이殺到하는外닭에〇六錢二本同價를暫間보이고곳〇七錢에同步하야大阪은四十錢에구어박은듯이膠着不動하되當地는〇八九錢으로十錢에漸漸强化하야場面이現著히强硬하야大阪止價四十一錢을보고結局十七錢에止하엿다

後場續騰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前日後止		[illegible]	[illegible]

取組高(單位石) 當[illegible] 中[illegible] 先[illegible]
帳入價格 當[illegible] 中[illegible] 先[illegible]
賣買高 當[illegible] 中[illegible] 先[illegible]

各店倫合

合計 [illegible]
本期總數 [illegible]
中限◇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先限◇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マ)(ウ)賣(カ)〇買
彼此不讓陣容

當地賣買方分野는⑦⑦買에對하야⑩〇買로對峙되엿다其⑦는月初부터賣進한것인데相當한實米를手持하야遠般來正米無動한것을보고서保險의意味로賣繫한것이라한즉正米가確實히强氣를뵈이기前에는容易히買戾치아니할듯하며또⑦로말하면當初에는買便으로出하엿든것인데昨今反撥에其買物를利喰하고서途轉賣를始作한것인즉其意氣가尙勸한만치當分間은强化할사록賣增할지언정곳轉賣치는아니할것이다그리한데買便에는當初부터〇가深其他買進하야왓고또⑦가急遽히途轉賣를하엿는데其買物은群山側의有力한買物이라하니其亦正米强化를背景삼아出動한것인만치수험히退却치안이할것갓타이對戰의勝負가歸決되는곳에騰落間分岐的步調가잇스리라하야一般은興味視하는모양이다

正米動靜注目

昨今의反撥도其原因이正米强化에서發하엿다고하거니와事實當分間騰落은正米動靜에依하다할수잇다只今正米强化하는것이오즉地方出廻가次次稀薄해지는것과또는한참동안在絶狀態에잇

實收發表期待

돈日本移出이少量이나마漸漸始作되는것밧게는何等의根本的으로强化할事情이잇슴을發見할수업다各地의在米는例年에드문激增을示하엿스며또日本各地의大受米로말할지라도于今賣行이不良하야早晩間其受米壓迫을免하기어려운狀態에在하는注視히正米强化하는것을信賴하기難하다料는出荷自動他動을勿論하고强軟材料는正米動靜을注目할수밧게업다各地在庫增減狀況이라든지日本의受米處分成行을좀더考察할必要가잇슬듯하다

米作第二回豫想數字가거의實收에갓차운것이라하야大約昨年의供給數字가判斷낫다할지라도實收에잇서서一二百萬石增減되는例가또한업지도아니함으로其發表期日이迫近함에따라其實收數字如何를궁금히여기는人氣이다

米豆[illegible]

◇…日來四五十丁이急騰하는바람에賣買仕手는한번變하엿다
◇…⑦買方의⑦는途轉賣를하고賣方의⑦에는群山側의大量買物이들어와서그러되엿다고今般大阪强化도群山側賣物여분이라한다群山米商이東西市場을揮動하는觀이有한걸
◇…群山이米移出港으로朝鮮의一位를占하는外닭에群山에서오는注文이라하면어데에서던지만만히보지를못하는듯
◇…그러하나群山의在庫米도敵增한것은事實이니其東西의買物이어데外지永續할는지가疑問이라高一에四方의賣勢가應하야주지안는때에는그것이後日禍根이되지안할는지
◇…오래동안低迷한지라어느程度外지反撥함은當然하다그러하나期節關係上場脚本道程으로올너슨것이라고보기는早計일듯

◎仁川正米市勢

㊂三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㊃四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無檢查地方米	一石	[illegible]
一等精白米	一石	[illegible]
正租 改良種	一斤	[illegible]
在來種	一斤	[illegible]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後場止跡氣配

◇先限 三十五圓五十八錢

東京期米

一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政局混沌과賣方有勢化？
不信任案提出과三日間停會

兩日間의議會狀況은 別로險惡한空氣가엇시 平凡한質問戰이오고갓든이엿슴으로 燥欲한派는 買氣를揚하라는傾向外지잇섯든것이 急轉直下의勢로 不信任案이 畢竟議會에提出되야 將次風雲이激起할것은물넘업고또議會의解散은避치못할途程에至하엿다

◇그러나政府에서는 곳三日間停會를命하야 實로今後의政局이야말로 混沌天下로볼수잇스며 株界는勿論政局이安定되기前에는 到底히買方針을取할수업는一面에 賣方이어느程度外지는優勢하리라고보는것이 有理할듯하나 深押의低價賣는疑問이업지안니다하

◇京取는賣買高가 날로減退하여감으로 業績悲觀이起하고京鐘의防買戰도업슴으로 一層그底意가軟弱하야二十圓低

各地延取引

兵庫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關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桑名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釜山 賣買高 [illegible]石

	二月中	二月末	三月中
前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後場一節			[illegible]

大邱 賣買高 [illegible]石

	二月中	二月末	三月中
前場一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後場一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群山 賣買高 [illegible]石

	二月中	二月末	三月中
前場一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後場一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株式 前場稍强 （二十日 京取）

▲京取十錢高▲鐘新二十錢高▲大新保償▲安取二十錢高

益不氣乘商狀

今朝에도稍不變의閑散으로大新阪付九十六圓四十錢後五十錢釘着임을보고當地도九十六圓二十錢付價後不動의膠着步調로一向往來도업시三十錢大引이엿스며▲京取는二十六圓七十錢步調後一口▲鐘新은百四十三圓付價後一口▲安取는大引에八圓四十錢一口가잇섯다

大新頻頻釘着
阪地六圓五十錢
當地六圓三十錢

大新은今月十一日阪地九十七圓五十錢釘付가잇슨後漸退軟調로七圓臺가紛여지고一向反撥의硬調가업습으로一部의失望的投物이잇스나顯著한深込賣가업는結果保勢味가잇스며따러서膠着性이만흔니今朝에도阪付九十六圓六十錢後五十錢當地는九十六圓三十錢으로各各釘着의市勢를示하엿다要컨대軟派에서는이처름無勢를오래持續함은暴落의前提이라하야極端의低價說을唱하나아즉突込賣도考慮할곳이니即不安材料가만흔나今年悲觀할것이아니요다만人氣를減殺함에不過함으로今後는材料如何에追隨될뿐이라는觀測이잇다

中旬入超增？

旣述함과가치中旬貿易에對한期待가別無함뿐만아니라돌이혀上旬보다入超가增加하리라는念慮를抱하는바今朝에貿易待의氣分이조곰도업슴을보면入超減이잇다할지라도顯著한數字가아니면想인듯하고或은多少入超增의豫想인듯하며反撥이微弱할듯하다

一層賣買減退

京取는新甲以來二十七圓臺를抱하는後다시保勢를示하고大新도一向無勢임으로當地는極히不氣乘의場面을呈하는一面小口賣買도緖緖減退하야近日에는僅僅二三百枚의賣買가잇슬뿐인바今朝에는大新五十錢釘着을作하야新甲賣의一百二十枚가잇섯고그外는모다『바이가이』이엿슬뿐이다

前場賣買關係

◇大新一二〇(賣)新田(買)岡松山洪殷柱◇鐘新二〇(바이가이)新田◇京取五〇(바이가이)田道◇安取一〇(바이가이)成淸

前場諸株步調

◇京取=[illegible]
◇鐘新=[illegible]
◇大新=[illegible]
◇安取=[illegible]

大阪短期前場步調

◇大新=[illegible]
◇鐘新=[illegible]
◇久原=[illegible]
◇京取=[illegible]

後場不動

▲京取保償▲鐘新保償▲大新十錢低

後場諸株步調

◇京取=[illegible]
◇鐘新=[illegible]
◇大新=[illegible]

大阪短期後場步調

◇大新=[illegible]
◇鐘新=[illegible]
◇久原=[illegible]
◇東新=[illegible]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場	後場
京取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短期賣買成立高

合計 七七、七三〇枚
累計 五二〇枚

大阪短期取引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取引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綿絲			
太極星	[illegible]	三山	[illegible]
不老草	[illegible]	天桃	[illegible]
三神山	[illegible]	大A	[illegible]
金剛山	[illegible]	鑁	[illegible]
煙管	[illegible]	人貴	[illegible]
▲粗布			

◎大阪三品

	前寄	前引	後寄	後引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絲 [illegible] 鐘 女 [illegible]
▲細布 [illegible] 鳥 [illegible]
▲飛天 [illegible] 藍 [illegible]
▲金巾 [illegible] 進 [illegible]
▲晒木綿 [illegible] 竹 [illegible]

◎大阪綿花

	前寄	前引	後寄	後引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絲

	前付	前引	後付	後引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枚數 二、九三三枚
金額 一、七〇四、〇九六圓

◎朝鮮銀行券 十九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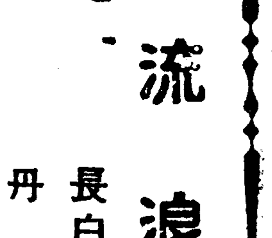
◎對外爲替 二十日着

對英 二志三二分一
對米 四八弗四分三
上海 七七兩四分三
(朝鮮銀行建値)

◎海外經濟 二十日着

倫敦銀塊 二五片八分七
紐育銀塊 五五仙八分七
米綿 二十錢低
印綿 五十錢高
英米爲替 四弗八五仙三分二
스렐 一五七弗四分一
아나콘다 四八弗八分一

流浪【六】
長白山人 作
丹谷 畵



바람에불려(三)

그러나등청이가죽고안죽은것이다를것이업다 누이와 나와는경관을쏘 죄인이다。우리들은그날人밤 뒤人산굴人속에서 우리집이 불타는것을보앗다。우리들은잡히면 죽는판이다。우리들은산으로 괴어이를人동안 밥을굼고반생반사의 몸이되어 밤에농가에나려와 밥을어더먹고 그할머니집을 차자갓던것이다。

『애어우리집에서 밤먹엇단말은마우』

하고늙은농부는신신부탁하엿고나도

『허를불어도솜시언덩 그런말을할리가 잇습닛가』

하고백배사례하엿다。

『가엽서라젊으신네가』

하고그집로파도누이를보며눈물을흘렷다。그러나 이세상에서는이로인 내외의친절을 말할수가업는것이다、하나님이나 기록하여둘소사하엿다。

그러나인제는조선국경은버서낫다。배파선만안하면 우리는무사히상해에 갈것이오 상해에만가면자유런다다!

이러케생각하면팔아픈것도우수웟다。어서이배가 무사히연래(煙台)에만다하주면아프던팔도다나을것만가랏다。 나는맘을노코잠이들엇다。

순사와헌병이총혈포를노코뒤로따라오고 나는아모리 다라나려하여도 다리가 무거워다라나지못하야 애타는꿈을 쑤다가눈을뜨니 배人가장자리에 부듸치는물人결소리는들리는데 컨신이가려워 견댈수가업다。둑둑긁어가손人가락에 잡히는것을 집어내어보면 배人것 커먹어서퉁퉁붓은보리알가튼 니다。나는깜짝놀라 닐어나안젓다。누이도벌서잠이새엇든지눈을뜨며、

『니 잇수?』

『니 잇는게무에냥사못견신

하고웃는다。

에쌀렷고나』하고나는 우선우중을버섯다。커고리안에 니가우글우글 숨을 자리를 찻노라고긔고굴고 잣바지고 야단이다

『너는엇더케견되니?』

하고 나는태연히 누어잇는누이를바라보앗다

『죄다잡앗지 일백설흔두놈을잡앗소』

『그건다 엇잿니?』

『차두엇지 긔념으로』

그러나 나는잠을생각도 나지아니하야 불쌍럽히 보고안젓는동안에 니들은 다경관에게쏘기노름人군들모양으로 솜기와떠어진름으로숨어버리고말앗다

『되놈은 나도겁어!』

하고 누이가 웃는다

『또되놈이라고해!』

하고 나는눈을 흘겻다

『중국사람이라고 그러지』

『중국사람은 녀자니넘어길구니가 이러케생긴것을보면 그러케부르기 힘드는얼굴을 봄려주고십지도안소』

한다

날이밝은모양이다 갑판우에서 우당탕거리고 씨알라마 뚝쒸얄라야하는듯한 떠드는소리가들린다 인제는 날어날가할즈음에어린 호인하나가와서 출입구뚜껑을여니 아츰人빗에 찬무른하늘이확 방으로 들어온다어느새에 밝앗고나 어느새에 날이밝앗고나하고 벌떡닐어낫나

그어린호인은 이상한드시 으리들을 물쓰럼히 둘여다보면서

『캐관나 캐관나』

하고 못는모양이다 그러나나는그뜻을모름으로 어더듦은 말로

『워부지도』

하엿다 모른다는뜻이다 어린호인은 우스며 손으로입에무엇을퍼넛는시늉을하고는

『앙、앙?』

하고 못는표정을한다

『밥먹으란말인가보우』

하고 누이는

『홍캐관 캐관!』

하고 어린호인이 하던말을반복하엿다 어린호인은 벼과해풍에걸고걸어 시퍼런퉁퉁한 얼굴에누런 닛빨을보여 씩웃고

『하오아 하오아앙』

하고 가버린다

우리들은서로바라보고 우섯다

社告

集金員 黃麟秀
右와如히本支局員을任命하얏삽기玆에社告함
東亞日報 長湖院分局

本支局記者徐七龍君은辭任하얏삽기玆에社告함
東亞日報 始興支局

本支局記者高東胤金德允兩君은辭任하얏삽기玆에社告함
東亞日報 利原支局

懸賞
投票募集

「有名한藥은?」하고 누구에게뭇든지 「기침」「천식」의名藥 龍角散 의니름이나온다

그만큼絶對의信用이잇고市賣기침、천식에對하야는代表的特効藥이다

問題
(一)龍角散은엇던色을가젓슴닛가
(二)龍角散은엇던容器에드럿슴닛가
(三)이懸賞을보신新聞名

◇投票 官製葉書에右三問題의答을써쓰실일
◇宛名 東京市神田區豐島町角 龍角散本舖懸賞係
◇締切 二月十日限
◇抽籤 大阪朝日新聞、東京朝日新聞社員立會後投票에對하야嚴正한抽籤을行하고左記當選者를決定함

賞品
一等 復興債券五圓 一枚(拾名)
二等 シャープ鉛筆 一本(百名)
三等 龍角散 貳拾錢 一個(五百名)

◇發表 二月中旬 大阪朝日新聞紙上

登錄商標

龍角散

特長
龍角散은貴重한藥劑로된故로小量으로도奏効卓著하고、香味爽快하야服用키쉬우며、咽喉의苦痛을完全히除함

이런분은반듯이試服하라
●담으로恒常골골하는사람
●천식으로각금氣絶하는사람
●기침으로밤에잠못자는사람
●流行感冒로기침나는사람
●肺病으로늘無力한기침나는사람
●담에냄새나고피가석기는사람
●목쉬며또咽喉의압흔사람
●百日咳又나紅疫기침나는小兒

其他如何히頑固한呼吸器疾患의기침도約一二週間服用하면其効果가顯著함

定價 [illegible]

本舖 藥劑師 藤井得三郞
東京市神田區豐島町
振替東京一九二三番 電話浪花一八〇五番

▽全國各藥店에有함△